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1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1) 서정 갈래의 이해

확인 문제 01

본문 12~13쪽

01. ④ 02. ① 03. ③ 04.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시작되며,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01 화자는 1~2연에서 갑자기 시작된 사랑을 받아들이고, 3~4연에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주변 세계까지 받아들이는 일임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5연에서 사랑으로 온종일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1~4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가 5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배에서 던져진 밧줄이 매어지고 배가 부둣가에 천천히 닿는 모습을 통해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이 시는 갑자기 던져진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일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운명처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즉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배를 매는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이 시는 화자가 배를 매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랑의 의미를 사색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도 없이’, ‘–느다’, ‘–ㄴ/는 것’, ‘구름과 빛과 시간’처럼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어와 시구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감각적 이미지(심상)

시의 이미지는 비유나 묘사, 상징 등을 통해 형성되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공감각 등을 나타내는 언어로 표현되는 이미지를 감각적 이미지라고 한다. 시각적 이미지는 대상의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는 소리와 관련된 시어를 통해, 후각적 이미지는 냄새와 관련된 시어를 통해, 미각적 이미지는 맛과 관련된 시어를 통해 표현된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푸른 아우성’에서 청각적 ‘아우성’을 ‘푸른’이라는 시각으로 표현하는 청각의 시각화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 복합 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의 전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빼꼼새 우는 푸른 숲’과 같이 서로 다른 감각이 단순하게 나란히 배열되어 이미지를 형성한다.

02 1연에서 밧줄이 갑자기 날아온 상황이 나타나 있으나, 화자가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당황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자가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는 모습에서 반가움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03 2연에서 화자는 부둣가에 넋 놓고 앉았다가 우연히 배가 들어오며 던져진 밧줄을 받아 배를 매고 있다. 이때 ‘밧줄’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인연을 의미하는 시어로, 화자에게 사랑이 갑자기 시작되었음을 알려 준다. 즉 화자가 간절하게 사랑하는 인연을 기다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배’는 화자가 사랑하게 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② ‘호젓한 부둣가’는 화자가 앉아 있는 시적 공간으로, 화자에게 사랑이 찾아오는 공간을 의미한다.

④ ‘어찌할 수 없이’는 사랑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저항할 수 없이 운명처럼 시작되는 것임을 드러낸다.

⑤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은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대상을 둘러싼 세계까지 받아들이는 일임을 나타낸다.

04 화자는 부둣가에 넋 놓고 앉아 있다가 배가 들어오며 던져진 밧줄로 배를 맨 경험으로부터 사랑의 본질에 대한 중요 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즉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운명적으로 찾아오며,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가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사랑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지닌 주변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아닌 화자의 경험을 쓴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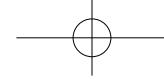
본문 19~20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⑥ 05. ⑦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 ⑥ 사랑하는 사람 06. ② 07. ① 08. ‘나’는 ‘나룻배’로,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고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날마다 낚아’ 가면서 당신을 위해 안내하고 희생하는 존재이다. 이와 달리 ‘당신’은 ‘행인’으로, ‘흙발로 나를 짓밟’고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리는 존재로 ‘나’의 사랑을 몰라주는 무심한 사람이다. 09. ④

01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나)에서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가)와 (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배’, ‘밧줄’, ‘구름과 빛과 시간’ 등이, (나)에서는 ‘나룻배’, ‘바람’, ‘눈비’ 등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오답 풀이 | ㄴ. (가)와 (나) 모두 겉보기에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은 역설적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정답과 해설



르. (가)와 (나) 모두 담담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상이 전개되면서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ㅁ. ‘-ㅂ니다’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무한한 희생과 인내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시의 운율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시에서 음악적 요소에 해당한다. 운율은 유사하거나 같은 음운, 단어, 문장 구조 등이 반복되면서 형성되기도 하고, 동일한 글자 수나 음보의 반복, 대구적 표현, 음성 상징어 등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02 (가)의 ‘배’는 운명적으로 다가와 화자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는 대상이다. 이에 비해 (나)의 ‘배’는 희생하고 인내하며 당신을 기다리는 존재로, 고난 속에서도 희생과 인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나)의 ‘배’가 고통과 절망의 모습이 강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 (나) 모두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가)의 ‘배’는 화자가 사랑하게 되는 대상을, (나)의 ‘배’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희생적 사랑을 상징한다.

② (가)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의 모습을, (나)는 여울을 건너는 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③ (가)의 화자는 배를 바라보며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깨닫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신을 나룻배에 빗대고 있다.

④ (가)는 호젓한 곳에서 잔잔하게 울렁이는 사랑의 모습을, (나)는 상대에게 짓밟히면서도 희생하고 인내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 준다.

03 ‘구름’과 ‘빛’은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를 의미한다. ‘구름’과 ‘빛’이 대조적 이미지로 사용되면서 사랑의 양면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털썩’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밧줄이 날아든 시적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② ‘밧줄이 날아’오고 배가 뒹는 장면은 사랑이 다가와 시작되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보여 준다.

③ ‘호젓한’은 조용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시어로, 화자가 있는 부둣가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⑤ ‘빛 가운데’ 떠 있는 배는 사랑의 설렘으로 행복한 화자의 감정을 환기한다.

04 (가)의 화자는 사랑은 대상의 주변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05 ①는 화자와 ‘배’를 연결해 주는 것이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의미하며, ②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06 ‘나’는 상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당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 인내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④ ‘당신’이 ‘흙발로 나를 짓밟’더라도 희생적인 태도로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③ 화자는 ‘행인’에 빗댄 ‘당신’을 태워 이동시키는 ‘나룻배’가 자신임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상대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가’는 존재로 ‘당신’이 언제 오더라도 한결같이 기다릴 것이라며 일관된 믿음을 보여 주고 있다.

07 <보기>에 따르면 제도 사상은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에서 화자가 ‘당신’을 태우고 물을 건너게 해 주는 것은 ‘당신’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이끌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③ ‘나’가 주어진 고통을 인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지, 화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④ ‘나’가 고해의 ‘물’을 건너는 것은 중생인 ‘당신’을 고해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는 것으로 화자 자신이 ‘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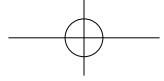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⑤ ‘나’는 중생인 ‘당신’을 구제하는 제도 사상을 실천하는 것일 뿐, ‘당신’을 불교 세계로 전도하여 불교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08 ‘나’와 ‘당신’은 태도상 대비를 이루고 있다. ‘나’는 ‘당신’에 대한 희생과 인내의 사랑을 보여 주고 있고, 이에 비해 ‘당신’은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매정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

(나)의 시구를 인용하면서 ‘나’와 ‘당신’의 태도 차이를 대비하여 서술한 경우	상
태도의 차이를 대비하여 서술하였으나, (나)의 시구를 근거로 들지 않았거나, 근거로 든 부분이 미흡한 경우	중
(나)의 시구를 근거로 들었으나 태도 차이를 대비하여 서술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거를 들지 않고 태도를 단편적으로 쓴 경우	하

09 ‘나’가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을 얻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2) 서사 갈래의 이해

확인 문제 01

본문 24~25쪽

01. ② 02. ⑤ 03. ⑥ 04. ‘나’는 점순이와의 성례 문제로 장인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를 시켜 주지 않고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01** 이 글은 서술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의 서술자는 주인공 ‘나’로,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의 서술자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④ 이 글은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전개된다.
⑤ 이 글은 서술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전달한다.

- 02** 장인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데릴사위제를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수룩한 인물인 ‘나’는 장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일을 해 주면서 점순이가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말을 믿고 있다.

- 03** ①에서 ‘나’가 물을 대신 길어다 준 것은 점순이의 키가 빨리 크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점순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①에서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아서 성례를 시켜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② ②에서 ‘나’는 데릴사위로 와서 3년 7개월을 사경도 받지 못하고 머슴처럼 일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③에서 ‘나’가 많이 먹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장인이 인색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④에서 스스로를 ‘숙맥’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나’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이 글은 성례를 둘러싼 ‘나’와 장인의 외적 갈등을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장인이 점순이와의 성례는 시켜 주지 않고 ‘나’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외적 갈등의 이유를 언급하고, 갈등의 근본 원인을 장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외적 갈등의 이유를 언급하였으나,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일부만 서술한 경우	중
외적 갈등의 이유만 언급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26~27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③

- 01** 이 소설은 대체로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쉼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황을 열거하거나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로, 그렇다고 해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한 문장 안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모’, ‘논’, ‘황소’ 등의 토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② ‘이 놈의 장인님’에서 비속어와 경어를 섞어 사용하고 있다.
③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내 멱살을 웅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등에서와 같이 일상 대화에서 보통 쓰는 구어(口語)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직접 말하듯 표현하고 있다.
④ ‘쓱쓱’, ‘철병철병’, ‘똑똑’, ‘엉큼엉큼’ 등에서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2** (마)에서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 참봉 택 마름으로 더 잃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장인은 욕을 잘하고 폭력적인 성품 탓도 있지만 마름으로서 소작인들에게 횡포를 부려 더 인심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 03** 소설에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직접 제시(말하기)와 간접 제시(보여 주기)가 있다. (마)에서는 서술자 ‘나’가 장인의 성품과 특징을 분석하여 직접 제시하고 있다.

- 04** ‘나’는 점순이의 키는 크지 않고 장인의 배만 불리는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아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린다. 여기에는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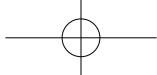
확인 문제 03

본문 28~29쪽

01. ② 02. ④ 03. ③

- 01**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며 ‘나’는 따스하고 꿈꾸는 것 같은 봄볕을 받으며 가슴이 울렁거린다. 이러한 계절적 특징은 ‘나’와 점순이의 사랑의 시작과 잘 어우러지며 청춘의 설렘을 상징한다.

| **오답 풀이** | ① 청춘 남녀들의 갈등이 복잡하게 엮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는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아 춘정을 느끼고 있지만, 점순이와의 성례 문제가 해결될 것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마을 사람들과 마름 사이의 갈등이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배경의 역할

- **현실성 부여:** 시간, 장소 따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이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 **분위기 조성:** 작품의 분위기를 밝고 희망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어둡고 절망적으로 흐르게 하기도 한다.
- **인물의 심리와 사건 암시:** 인물의 심리 상태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암시를 줌으로써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

- 02** 어저께 장인이 배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는 '나'의 뺨을 때리자. '나'는 성례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구장에게 가려고 하였다. 따라서 ④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다.

| **오답 풀이** | ①은 어저께 있었던 일, ②와 ⑤는 (어저께의) 그 전날 있었던 일, ③은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이다.

- 03** '나'는 장인이 사위라는 명목으로 사경을 주지 않고 일을 부려 먹으면서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지 않자 ⑤과 같이 말하며 장인에게 반항하고 있다. 더 이상 장인 집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하고 있는 말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일손이 필요한 장인은 벼가 잘되면 가을에 성례를 시켜 주겠다며 '나'를 희유하고 있다.

② 장인은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점순이의 키를 평계로 '나'의 성례를 계속 미루고 있다.

④ 장인은 '나'가 머슴이 아니라 사위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경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

⑤ '나'는 키가 자라지 않는 점순이를 보고 화가 나 소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확인 문제 04

본문 30~31쪽

01. ⑤ 02. ② 03. ④ 04. 점순이가 결혼하기에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 01** (자)에서 점순이가 밥을 나르다 떨어뜨린 것은 행동이 조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는 것을 좋아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밤낮 일만 할 것이냐는 점순이의 말에 '나'는 '그럼 어떻게?' 라며 성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비해 점순이는 '나'가 장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성례를 요구할 것을 바라고 있다.

- 03** 장인이 '빙장'이라는 호칭을 좋아하는 것은 '빙장'이 '장인님'보다 더 존칭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인의 모습은 예의범절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⑦에서 '나'가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말한 것은 점순이와 내외를 하는 사이임을 보여 준다.

② ⑮에서 점순이는 일만 하고 있는 '나'를 답답하게 여기며 성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당돌하고 야무진 점순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③ ⑯에서는 구장의 외양 묘사를 통해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과시적인 구장의 성격이 드러난다.

⑤ 장인이 자신을 '빙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나'의 발등을 밟고 곁눈질을 하는 데서 '장인'이라고 부르는 '나'의 호칭에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나'는 점순이가 아직 어려서 성례를 시켜 줄 수 없다는 장인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점순이가 먼저 성례하고 싶은 속마음을 비추자 점순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에 반가워하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성례와 관련하여 점순이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상
점순이의 정신적 성장에 대한 '나'의 인식을 단편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나'의 인식 변화에 대한 언급 없이 본문에 제시된 표현을 그대로 쓴 경우	하

확인 문제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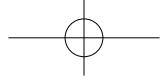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본문 32~33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①

- 01** 이 글의 주된 갈등은 성례를 둘러싼 '나'와 장인 사이의 갈등이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성례를 하고 싶고, 장인은 '나'를 좀 더 부려 먹기 위해 성례를 조금이라도 미루고 싶어 한다.

- 02** 장인이 구장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나'와 신경전을 벌이며 몸싸움을 하는 모습, 구장이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 튕기는 행동은 점잖은 체하나 교양이 없고 경망스러운 성격을 보여 준다.

- 03** 장인은 마름이고 구장은 소작인이므로 장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장으로 하여금 자기 편을 들도록 요구했을 것이다. 또 장인이 마름의 위치를 이용하여 '나'만 잘 설득해 주면 내년에도 소작은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 | 오답 풀이 | ① 장인이 내년에 '나'를 성례시킬 예정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장인이 구장에게 자기 농사 걱정만 했다면 구장은 빨리 성례를 시키라고 했을 것이다.
 ④ 장인이 구장에게 황소를 요구했는지 여부는 짐작할 수 없다.
 ⑤ 장인이 구장의 논일을 도왔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04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희화화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④는 구장의 행동을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으로 희화화가 나타난다.

- | 오답 풀이 | ⑥, ⑦, ⑧, ⑨는 희화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인물의 희화화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으로, 풍자와 해학에 의한 웃음과 함께 나타나는 비판, 비아냥거림, 동정, 안쓰러움 등이 희화화의 결과이다.

확인 문제 06

본문 34~35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③

01 뭉태의 말에 따르면 '나'의 장인은 딸만 셋이 있기 때문에 일 잘하는 데릴사위를 계속 바꿔 들이며 집안에 필요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02 뭉태가 '나'에게 해 주는 점순네 이야기를 통해 '나'의 성례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 오답 풀이 | ① 뭉태의 이야기는 장인의 가정사에 관한 것으로 장인이 마을에서 사위 부자로 소문난 이유를 보여 줄 뿐, 인심을 앓게 된 과정을 분석하지 않는다.
 ② 뭉태는 장인이 데릴사위 제도를 약용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데릴사위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④ 뭉태는 '나'에게 더 이상 일하지 말고 더 강력히 성례를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성례를 못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 '나'에게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⑤ 뭉태가 장인의 잘못을 '나'에게 알리고 '나'로 하여금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을 뿐, '나'와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장인은 딸만 셋이어서 농사일을 할 머슴이 필요한 처지이다. 첫째 딸이 열 살 때 처음 데릴사위를 들여서 열아홉에 시집을 보내기까지 10년 동안 열네 명의 데릴사위를 데리고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미끼로 돈을 들이지 않고 머슴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

위 부자'라는 비난이 섞인 별명을 얻게 된다.

04 뭉태가 ⑦과 같이 밀한 것은 '나'가 장인네 일을 해 주는 것을 그만 멈추고 당장 성례를 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기 바라는 것으로, 일을 낮에만 적당히 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확인 문제 07

본문 36~37쪽

01. ⑤ 02. ③ 03. 예미 잃은 황새 새끼, 점순이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자신의 가여운 처지를 의미한다.
 04. ③ 05. ②

01 이 작품에서 '나'는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장인의 교활함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현실의 불합리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수룩한 서술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 강한 해학성이 드러나며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02 '나'는 뭉태가 집안의 감투와 관련된 일로 장인에게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장인을 더 나쁘게 말한다고 생각하여 뭉태의 말을 건설으로 듣는다.

03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이 바보야!'라고 한 순간 큰 절망감을 느끼며 자신을 '예미 잃은 황새 새끼'에 빗대어 표현한다. 점순이는 미래의 배우자로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해 왔고, 점순이와 성례를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기 때문에 점순이가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을 비난하며 '바보'라고 하자 큰 상처를 받은 것이다. '예미 잃은 황새 새끼'는 의지할 데 없이 가여운 처지에 처한 자신을 의미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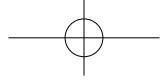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비유한 표현을 찾고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
비유한 표현을 찾았으나, 의미를 '나'의 처지라며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중
비유한 표현을 찾았으나 의미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또는 비유한 표현을 찾지 못하고 '나'의 처지만 서술한 경우	하

04 점순이는 '나'와 성례를 하고 싶어 '나'로 하여금 장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곁과 속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⑤ 점순이는 '나'의 소극적인 태도를 못 마땅해하며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인물이다.

④ 점순이가 '나'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아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정답과 해설



05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바보’라고 여기는 것에 상심하며 ‘슬펐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확인 문제 08

본문 38~39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⑤

01 제시된 부분은 ‘나’와 장인이 성례 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으로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 갈등이 고조된 만큼 긴장감이 드러난다.

02 ‘나’는 원래 점순이가 시킨 대로 장인의 수염만 잡아챌 생각이었지만 싸우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장인과 활극을 벌이게 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점순이는 부엌 뒤 올타리 구멍으로 ‘나’와 장인이 싸우는 모습을 몰래 엿보고 있었다.
 ② ‘나’가 일을 하지 않고 누워 있자 장인은 화가 나서 ‘나’를 지게막대기로 찌르고 발로 쳤다.
 ④ ‘나’는 장인이 선뜻 성례 약속을 해 준다면 당장 싸움을 그만두려고 하지만 장인은 성례 약속을 해 주지 않는다.
 ⑤ ‘나’는 점순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장인에게 세게 대응하는데, 점순이가 미워하는 장인님을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을 보아서 수염만 잡아채었다.

03 ‘나’는 ‘장인님’을 장인이 좋아하는 표현인 ‘빙장님’으로 호칭을 바꿔 부르다 장인의 공격이 심해지자 ‘할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다시 바꾼다. 이는 ‘할아버지’가 ‘빙장님’보다 더 높은 호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장인을 더 높은 호칭으로 불러 기분을 좋게 하여 공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04 ‘나’는 점순이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의식해 장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점순이의 뜻에 따르기 위해(오해였지만) 장인과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인과의 싸움을 멈추고 싶어 한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점순이와 당장 성례를 하고 싶어 한다.
 ② ‘나’가 장인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원래 잘 안 싸우는 성격인지는 알 수 없다.
 ③ ‘나’가 성가셔 하는 것은 장인과의 싸움이며 점순이의 충동질을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는다.
 ④ ‘나’는 구장에게 다녀온 뒤 성례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05 ⑥는 장인에게 바짓가랭이를 잡히고 거친 까무러치게 된

‘나’가 장인의 행동에 대해 장인답지 않다는 평가를 드러낸 부분이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서술자의 평가

서술자의 평가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품 속에 직접 드러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서술자의 평가를 서술자의 논평이라고도 하는데, 서술자의 논평이란 어떤 것에 대해 서술자가 논하여 비평하는 것을 말한다. 1인칭 시점의 경우 서술자 ‘나’에 의해 사건이 전달되므로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품 속에 항상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3인칭 시점의 경우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끼어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확인 문제 09

본문 40~41쪽

01. ⑤ 02. ③ 03. ②

01 점순이의 키는 성례를 미루려는 장인의 평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가 이에 속아 넘어가는 모습은 해학적이지만 ‘나’가 성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해학성과 거리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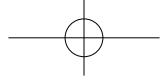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사용된 비속어와 사투리는 해학성을 드러낸다.
 ② 장인과 사위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상황이 과장되어 있고 해학적이다.
 ③ 상황을 보면하기 위해 장인이 사위를 ‘할아버지’라고 높여 부르는 장면에서 해학성이 드러난다.
 ④ ‘나’가 가을에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서술자의 어수룩한 성격을 보여 주며 해학성을 유발한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봄·봄」의 문체와 시점

‘봄·봄’의 인물들은 강원도 방언과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나’에 의해 사건이 전달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수룩하고 순진하여 장인의 속셈을 잘 모르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 ‘나’는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문체와 조화를 이루어 농촌 현실을 유쾌하고 해학적으로 그려 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독자는 이러한 서술자에게 친근감을 느껴 어수룩하고 무지한 ‘나’를 비판하기보다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

02 점순이는 ‘나’와 둘이 있을 때에는 성례를 빨리 서두르라며 충동질을 하지만, 막상 ‘나’와 장인이 싸우기 시작했을 때는 장인의 편을 들어 ‘나’를 당황하게 한다. ‘나’는 이와 같은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에 망연자실한다.

03 작품의 결말을 절정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절정의 해학성을 부각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는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 오답 풀이 | ①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 '나'와 장인 간의 외적 갈등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③ 인물 간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지 않는다.
 ④ 결말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지 뒷이야기에 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⑤ 해학성이 극대화된 부분은 절정 ② 부분이며, 결말을 절정 사이에 배치한 의도와 작품의 생동감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49~52쪽

01. ⑤ 02. ③ 03. '데릴사위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 농사를 망칠 수 있으니 되도록 비워 맞춰 줘야지.' 04. ② 05. ③
 06. ③ 07. '나'가 성례 문제에 소극적인 것과 달리, 점순이는 적극적으로 성례를 요구하라고 부추기는 것으로 보아 당차고 적극적이다.
 08. ⑤ 09. ⑤ 10. ③ 11. ② 12. '나'는 결국 성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인에게 회유되어 또다시 일하러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수룩하고 순진하여 장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서술자임을 알 수 있다. 13. ②

- 01 꾀병과 성례 요구라는 중심 사건을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
 02 장인은 '나'의 노동력 없이는 집안의 농사일을 다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나'가 다치면 장인도 손해를 보게 된다.
 03 장인은 '나'가 자기 집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 닦달하지 않으면서 성례를 시켜 준다고 회유를 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형식적 조건에 맞고, 장인이 '나'에게 비워 맞추는 행동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형식적 조건에 맞으나, 장인의 행동이나 이유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지만, 장인의 입장을 서술한 경우	하

- 04 '이놈의 장인님'은 낮춤 표현과 높임 표현을 동시에 사용해 장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장인에 대한 '나'의 한을 담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대가릴 까눌 자식'에서는 비속어를 통해 장인의 거친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해학성을 유발한다.
 ③ 장인의 외양을 '호박개'에 비유하여 해학적 웃음을 유발한다.

- ④ '길', '벗섬'은 농촌과 관련된 단어로 토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눈깔'은 비속어지만 저속한 느낌을 주지 않고 대상을 익살스럽게 드러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 05 이 글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인 '나'로, 성례를 평계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인의 속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점순이의 말을 오해하여 장인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서술자가 상대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서술자 '나'는 해학의 대상으로 독자는 서술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보다는 동정과 연민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 이것만은 알고 가기 | 신빙성 없는 서술자

- 특장: 서술자는 자신의 미성숙, 무지, 무교양 등으로 인해 스스로가 서술하는 인물 및 사건에 관한 인식, 설명, 평가를 정확히 하지 못해 독자의 인식과 괴리가 생긴다.
- 유형: 나이가 어린 서술자, 어수룩하고 순진한 서술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서술자 등
- 역할: 독자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서술자는 엉뚱한 말을 하며, 그런 서술자의 관점으로 사건이 서술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 06 '나'는 봄이 되어 만물이 약동하자 몸이 나른하고 울렁울렁하며 이유 없는 설렘을 느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성례를 계속 미루면서 일만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사일에 신명이 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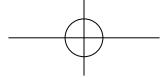
- ②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 아쉬워하는 내용은 없다.
 ④ '나'는 성례를 하고 싶어서 사경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지 사경을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나'가 성례를 못해 장인에게 불만은 있지만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 07 점순이는 '나'가 성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으며 더 강하게 성례를 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점순이가 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점순이의 행동을 바탕으로 '나'와의 성격 차이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
점순이와 '나'의 성격 차이를 단편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점순이의 성격만 단편적으로 언급한 경우	하

- 08 뭉태는 '나'에게 '나'가 점순네 집에서 성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뭉태가 분석한 것은 점순네의 가정사일 뿐이지 상황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



한 것은 아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한 것인지 연대를 요구하지 않는다.

- 09** 구장이 가을에는 장인이 성례를 시켜 주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자(◎), ‘나’는 그 말을 믿고 다시 논으로 돌아가 일을 한다. 구장이 전한 장인의 성례 약속을 믿지 않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구장은 “자네 말두 하기야 옳지. ~잘못된 말은 아니야.”라고 말하며 ‘나’의 말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척한다.

②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나면 손해죄로 징역을 갈 수도 있다는 구장의 말에 어수룩한 ‘나’는 정신이 번쩍 나며 겁을 먹는다.

③ 구장은 ‘손해죄’, ‘징역’, ‘성년’과 같은 법률 용어를 사용해 겁을 주며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

④ “올 갈에는 열일을 제치고라두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에서 장인의 말을 인용하여 나를 회유하고 있다.

- 10**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⑤은 먼 과거의 어느 날, ⑥은 어제 날, ⑦은 어제 날, ⑧은 어젯밤, ⑨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 11** (나)는 ‘나’가 장인에게 꾀병을 부리다가 옆구리를 차이고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는 장면이다. (다)에서는 장인과 ‘나’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에는 그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점순이의 충동질이 원인이 되어 (나)에서 ‘나’와 장인의 싸움이 일어난다.

③ (다)에서 장인이 ‘나’의 상처를 치료하고 성례 약속을 하자 (나)와 (라)에 나타난 성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④ (라)는 절정에 해당하는데, 이를 결말인 (다)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나’와 장인의 싸움이 보여 주는 긴장감과 해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⑤ (라)에서 ‘나’는 점순이가 장인 편을 들자 얼이 빠져 망연자실한다. (가)에서 점순이가 충동질할 때 ‘나’는 점순이가 장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12** ‘나’는 어수룩하고 순진하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수룩한 서술자이다. ‘나’를 일시적으로 회유하여 다시 일을 시키려는 장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모습에서 점순이와의 성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인과의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사건 해결 방향과 서술자의 특징을 연관 지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사건 해결 방향을 서술하였으나, 서술자의 특징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중
서술자의 특징만 단편적으로 언급한 경우	하

- 13** 장인은 굽소를 잡혀 심한 고통을 느끼고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달아 하고 있으므로 감정을 억누르는 말투는 적절하지 않다.

(3) 극 갈래의 이해

확인 문제 01

본문 56~57쪽

01. ② 02. ① 03. ‘V.O.(Voice Over)’는 화면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들리는 기법으로, 준경이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을 화면 밖의 준경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면서 준경이 처한 상황과 기차역을 만들려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04. ①

- 01** 이 글은 극의 한 갈래인 시나리오로, 서술자의 서술이 아니라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달된다.

- 02** 준경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기차역이 없어 마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힘든 마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준경이 기차로 통학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기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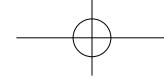
- 03** ‘V.O.(Voice Over)’는 화면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들리는 기법으로, 준경이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을 준경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줌으로써 관객이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통해 준경이 처한 상황과 기차역을 만들려는 이유가 잘 드러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V.O.’ 기법의 개념을 서술하고, ‘V.O.’ 기법을 통한 형상화 방법의 특징과 효과를 모두 서술한 경우	상
‘V.O.’ 기법의 개념을 서술하였으나, 형상화 방법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중
‘V.O.’ 기법의 개념이나 형상화 방법의 특징과 효과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하

- 04** ⑤은 어린 준경이 죽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준경이 대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암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⑤은 어린 준경이 고등학생으로 성장했음을 나타낸 것으로, 시간의 흐름과 준경의 성장을 보여 준다.



- ③ ④은 준경이 살고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④ ⑤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오십네 번째 쓰고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오래전부터 써 왔음을 나타낸다.
 ⑤ ⑥은 준경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마을의 상황과 관련됨을 보여 준다.

확인 문제 02

본문 58~59쪽

01. ④ 02. ① 03. ③ 04. 마을에 차가 다니는 길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위험한 철길을 걷다가 터널이나 다리에서 열차 사고를 겪는 일이 잦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간이역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한다.

01 S# 16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땅길 수 있게 우리 마을에도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이소.’를 통해 준경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마을에 간이역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S# 12에서 승객 열차는 시간표가 있어서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준경이 시계를 본 것은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입학식에 지각할까 봐 초조해하는 심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03 준경이 쓴 편지에는 마을 사람들의 희생이 이어지는데도 마을에 기차역 하나 없는 사회 현실과 이를 해결하려는 준경 사이의 갈등, 즉 사회와 인물 간의 갈등이 암시되어 있다.

- | **오답 풀이** | ① 간이역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는 편지이다.
 ② 기차역이 없는 마을에 간이역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바람을 준경이 대변하고 있다.
 ④ 편지를 쓴 날짜에 ‘1986년’이 제시된 것에서 시대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기차역이 없어 위험한 철교를 건너야 하고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한 마을의 상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04 마을에 기차역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피해 철교를 건너야 하는데, 승객 열차와 달리 화물 열차는 언제 어느 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터널이나 다리에서 죽은 사람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준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간이역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마을 사람들이 겪는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마을 사람들이 겪는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서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마을 사람들이 겪는 문제 상황이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하

10 정답과 해설

확인 문제 03

본문 60~61쪽

01. ③ 02. ④ 03. ④ 양원역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규정대로 기차를 세우지 않고 통과한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과 사의 구별이 분명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태윤의 성격을 알 수 있다. 04. ④

01 마을 사람들이 박 기사에게 전화하여 난리를 쳤다는 것은 박 기사의 말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화면에 직접 제시된 장면이 아니다.

- | **오답 풀이** | ①, ⑤ S# 89에 나타난 장면이다.
 ②, ④ S# 91에 나타난 장면이다.

02 ④은 열차가 속도를 늦추며 승강장으로 접근하자 기대감에 들떠 흥분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다. 나쁜 결과를 예상하게 된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없다.

03 마을 사람들은 태윤이 기차를 세워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태윤은 양원역이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규정에 따라 기차를 세우지 않고 통과한다. 이로 보아 태윤이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하며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행동의 이유와 태윤의 성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행동의 이유와 태윤의 성격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그에 대한 서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행동의 이유나 태윤의 성격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하

04 화가 난 듯한 준경의 모습을 보면서 보경이 안절부절못한 이유는 태윤이 양원역에 기차를 세우지 않은 일로 태윤과 준경의 관계가 더 멀어질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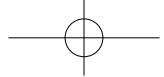
- | **오답 풀이** | ① 태윤이 기차를 세우지 않은 것이 보경 때문이 아니다.
 ② 태윤이 기차를 세우지 못한 이유는 규정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기차역에 집착하는 준경에 대해 태윤이 못마땅해하고 있지는 알 수 없다.
 ⑤ 기차역을 만들려는 준경의 간절한 마음을 태윤이 모르는 것은 아니다.

확인 문제 04

본문 62~63쪽

01. ⑤ 02. ⑤ 03. ⑤ 04. 보경은 준경의 눈에만 보이며 준경과만 소통하는 인물로, 준경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이 준경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01 S# 93은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극적 긴장감이 높아



지는 장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물 간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S# 93에서는 전화 벨 소리와 함께 장면이 시작되도록 연출할 수 있다.

② S# 93에서는 태윤과 홍보과장의 대사가 번갈아 제시되고 있으므로, ‘영주역 사무실’과 ‘철도청 홍보과’가 화면에 번갈아 나타나도록 연출할 수 있다.

③ S# 93에서는 잡지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태윤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있으므로, 이를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면으로 연출할 수 있다.

④ S# 93에서 문제가 되는 기사 내용이 ‘엄마랑 누나가 죽은 게 왜 준경이 탓인니까?’라는 태윤의 대사와 ‘준경 학생 때 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죽었다는 내용은’이라는 홍보과장의 대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므로, 태윤과 홍보과장의 대화를 통해 기사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02 홍보과장은 태윤에게 준경이 양원역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준경이 양원역을 만들려고 하는 다른 진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홍보과장은 태윤이 준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비난하고 있는지는 않다.

② 홍보과장은 보경의 죽음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③ 태윤이 잡지책에 실린 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홍보과장에게 전화한 것이다. 홍보과장이 기사 내용을 태윤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다.

④ 홍보과장은 태윤에게 준경이 양원역을 만들려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언급하였을 뿐, 준경의 마음속 상처가 생긴 원인을 말하지는 않았다.

03 태윤이 홍보과장에게 잡지책을 회수하고 사과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기사 내용으로 인해 준경이 상처를 받을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04 보경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지만 준경의 눈에만 보이며 준경과 소통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보경은 준경과의 소통을 통해 준경의 속마음을 관객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보경의 특징과 역할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보경의 특징과 역할을 모두 언급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보경의 특징과 역할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5

본문 64~65쪽

01. ② 02. ② 03. ③ 04.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용서받고 싶어서이다.

01 S# 116의 태윤의 대사에 나타난 말줄임표는 인물이 말을 어렵게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어지는 장면이 회상 장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다급하게 대화를 이어 가도록 하라는 지시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 말줄임표의 기능

말줄임표(……)는 할 말을 줄였음을 나타내거나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머뭇거림을 보일 때 사용되는 문장 부호이다. 태윤과 준경의 대화에서도 말줄임표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감추고 지내왔기에 속마음을 드러내는 대화에서 말줄임표를 통해 머뭇거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2 [A]에서 준경은 자신이 단 한 순간도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가 지금도 밉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③ [A]에서 준경은 엄마와 누나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아버지가 자신을 봐 주지 않는 이유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기 무서워서 피하고, 살갑게 말하지도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④ [A]에서 준경은 양원역을 만들려고 애쓴 이유가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용서받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⑤ [A]에서 준경은 양원역 건설 허가를 받았을 때나 양원역을 완성했을 때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신을 한 번이라도 봐줄까 싶어서 몰래 아버지를 보았지만, 아버지가 한 번도 봐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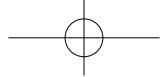
03 ④을 통해 원칙을 중시하며 고지식한 태윤의 성격을 엿볼 수 있지만, 박 기사에 대한 태윤의 서운함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준경이 상을 받던 날에 태윤의 ‘한’이 될 만한 사건, 즉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② ‘동생’이라는 말을 통해 태윤의 전화 상대가 보경임을 알 수 있다.

④ ④의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데…….’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태윤의 얼굴을 보여 주는 것이고, ‘저 멀리 철교 위를 달려가는 사람들.’은 태윤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찍은 두 장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를 통해 긴장감에서 벗어난 태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 04** 준경은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용서받고 싶어서 양원역을 만들려고 애썼음을 보경에게 밝히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진짜 이유를 '칭찬'과 '용서'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상
진짜 이유에 '칭찬'과 '용서'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중
진짜 이유로 '칭찬'과 '용서' 중 하나만 언급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6

본문 66~67쪽

01. ④ 02. ② 03. '트로피'는 보경의 입장에서는 준경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꼭 지켜 내고 싶은 대상이고, 준경의 입장에서는 누나를 죽게 한 원인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04. ④

- 01** 열차를 운행한 주체가 자신이라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박 기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통닭은 태윤이 준경이가 상을 받은 일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자식에 대한 태윤의 애정이 담긴 소재이다.
 ② 박 기사의 말을 통해 보경의 사고와 관련된 열차를 운행한 것이 태윤임이 드러나면서 관객은 화면 밖 사건의 전모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③ 박 기사가 화물 열차 번호를 말할 때 태윤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열차를 몬 것이 태윤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박 기사가 숙직실로 다급하게 들어오며 태윤을 부르는 것에서 태윤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2** [A]의 인서트 장면은 화물 열차를 피해 철교 위 대피 공간으로 피하는 사람들을 보여 주는 원경에서 보경이 들고 있던 트로피를 보여 주는 근경으로 바뀐다.

| 오답 풀이 | ①, ③ 인서트 장면은 보경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극적 긴장감을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
 ④, ⑤ 인서트 장면은 앞뒤로 연결되는 두 화면 사이에 끼어 있는 장면으로, 보경이 들고 있던 트로피가 부각되고 있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 인서트(Insert) 사용의 효과

'인서트'는 사전적 의미로는 '끼워 넣다, 끼우다, 삽입하다'의 뜻이다. 영화에서 장면들 사이사이에 다른 장면을 끼워 넣는 '삽입 화면'을 말하는데,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인서트 화면이 없어도 장면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나, 인서트 장면을 통해 상황이 명확해지는 한편 이야기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인서트는 대개 대상물을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기법인 클로즈업의 장면이 사용된다.

- 03** 보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준경이 상으로 받은 '트로피'는 준경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어떤 상황에 서도 꼭 지켜 내고 싶은 대상이다. 준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트로피'는 누나를 죽게 만든 원인이 된 것으로 준경에게 죄책감을 안겨 준 원망스러운 대상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본 '트로피'의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본 '트로피'의 의미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중
'트로피'의 의미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서술한 경우	하

- 04** 박 기사가 ㉡에서 열차를 자신이 운행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태윤이 몰았던 열차에 보경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준경이 알게 될 경우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확인 문제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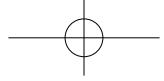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본문 68~69쪽

01. ① 02. ④ 03. 태윤이 준경에게 지금까지 숨겨 온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놓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드러낸다.

- 01**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는 준경.'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태윤이 숨겨 온 사실을 준경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② '그면 너까지 그래 될까 봐…… 너무 무서워서 너를 멀리한 거다…….'를 통해 태윤은 자신 때문에 준경마저 잊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니가 당연히 나를 원망할 거라 생각했다…….'를 통해 태윤은 준경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웃음을 알 수 있다.
 ④ '내 니를 사랑하는 걸 들킬까 봐…….'를 통해 걸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태윤이 속으로 준경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니는 아무 잘못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너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말란 말을 꼭 해 주고 싶었다.'를 통해 태윤은 준경이 엄마와 누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② '니 짐을 덜어 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태윤의 이야기를 듣고 준경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운다. 즉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⑦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에 담긴 준경의 원망이 해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3** 태윤의 대사에 사용된 말줄임표는 오랫동안 숨겨 온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놓기 힘든 심리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인물의 심리와 관련하여 말줄임표의 기능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인물의 심리와 관련하여 말줄임표의 기능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중
말줄임표의 기능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인물의 심리와 관련짓지 못한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75~78쪽

01. ⑤ 02. ② 03. ④ 04. 카메라가 어린아이의 그림을 보여 주다가 책상에서 글씨 쓰는 소리를 따라가 큰 손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05. ③ 06. ④ 07. 준경은 말은 통명스럽게 하지만 보경을 무척 쟁기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준경이 겉으로 보기에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8. ③ 09. ③ 10. ② 11. 준경은 자신이 목표한 일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12. ② 13. ⑤ 14. ③ 15. 준경은 엄마와 누나가 죽게 된 것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다.

- 01** 이 글의 갈래는 시나리오로, 사건은 주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전달된다.

| 오답 풀이 | ① 시나리오는 시·공간적 배경의 전환에 제약이 거의 없다.

② 시나리오는 스크린을 통해 관객과 만나게 되므로 관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

③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구성되는 것은 교술갈래이다.

④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서술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서사갈래이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시나리오의 현재형 표현

'준경은 태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객차로 향한다.'와 같이 시나리오에서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은 현재형으로 진술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시나리오에서는 현재화된 사건이나 인생을 표현한다.

- 02** '태윤 역시 무뚝뚝한 얼굴로 앞만 보고 있다.'를 통해 볼 때, 태윤이 준경을 데리고 가는 보경을 보고 반가운 내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03** S# 16의 '자전거'는 준경이 학교를 가기 위해 사용한 교통수단일 뿐이다. 이것이 준경의 앞에 펼쳐질 힘겨운 상황을 예고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S# 5의 '엄마 별'은 준경의 죽은 엄마를 상징

하는 것으로, 준경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암시한다.

② S# 6의 '손전등'은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적 배경이 동트기 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S# 13의 '따뜻한 물'에는 준경과 보경이 서로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⑤ S# 17의 '현수막'은 정문 안에서 고등학교 입학식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04** S# 5에서는 어린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을 보여 준 후, 책상에서 글씨 쓰는 소리를 따라가 보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큰 손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어린 준경이 자라 고등학생으로 성장하였음을 관객이 알게 해 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어린아이의 그림'과 '큰 손'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상
'큰 손'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어린아이의 그림'에 대한 서술이 부족한 경우	중
'큰 손'에 대한 내용만 서술한 경우	하

- 05** ⑤은 화면 밖에 있는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화면으로 제시되는 내용과는 독립적인 것이다. 그러나 ⑤의 '우리 마을에는 길이 없어' '기찻길을 걸어서' 가야 한다는 내용이 S# 10의 화면 내용과 관련성을 띠면서 화면 속에서 철길을 걸어가는 준경과 보경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⑤은 화면 밖에 있는 준경의 목소리에 해당하지만,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고등학생 준경의 목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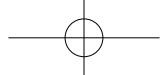
② ⑤은 화면으로 제시된 등교 장면과 별개의 것으로, 화면의 사건과 순차적으로 이어진 사건이 아니다.

④ S# 16의 화면은 준경이 보경을 자전거에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고, ⑤은 편지의 내용으로, 화면과 ⑤의 내용이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⑤이 화면으로 제시된 장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⑤은 편지를 쓰고 있는 '1986년 3월 3일 새벽'이고, S# 17의 화면은 입학식에 참석하는 '낮'으로 시간적 배경이 다르다.

- 06** ④에서 준경이 보경의 손을 꽉 틀어쥐고 철교를 건너는 것은, 준경이 보경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⑤에서 준경이 태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객차로 향하는 것을 통해 준경이 태윤과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준경은 말을 계속 통명스럽게 퉁퉁거리면서도 보경을 무척 쟁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준경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임
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준경의 태도와 성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준경의 태도는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성격은 무뚝뚝 하다는 내용만 언급한 경우	중
준경의 태도나 성격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 08 준경은 엄마와 누나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원역을 지어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용서받고자 한 것이므로, 태윤이 보경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홍보과장은 태윤에게 잡지책에 실린 기사 내용이 준경이 직접 말해 준 것이며, 준경이 어려서부터 양원역을 만들려고 애쓴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며 준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열차가 없어서 제때 병원에 못 가 죽은 거고, 열차 피할 라다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이라는 태윤의 대사를 통해 준경의 엄마와 누나의 죽음에 열차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태윤이 박 기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규정대로 하는 거지.’라고 한 대사를 통해 태윤이 양원역에 열차를 정차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태윤이 ‘지 땜에 엄마랑 누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열매나 상처받고 힘들지’ 아니며 홍보과장에게 따지는 장면에서, 태윤은 준경이 가족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9 (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에 따라 장면이 배열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병렬적으로 구성된 두 개의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은 나타나 있지 않다. 양원역에 열차가 서기를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설렘과 열차가 그냥 지나가자 당황하는 심리가 인물들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④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주제를 암시하는 소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

- 10 ‘문도 없이 벽으로 입구가 가려진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화장실’이 잘 완성된 양원역의 면모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축 개통’이라고 손으로 쓴 ‘플래카드’는 양원역의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보

여 준다.

- ③ ‘카메라’는 양원역이 개통되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은 마을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소재이다.
 ④ ‘잡지책’을 본 태윤이 홍보과장에게 화를 낸다는 점에서, ‘잡지책’은 태윤의 고조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소재로 볼 수 있다.
 ⑤ ‘전화’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태윤과 홍보과장 간의 소통을 매개한다.

- 11 준경은 양원역을 건설하기 위해 오랜 시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결국 편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양원역 건설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양원역 건설이 미뤄지자 준경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양원역을 만들어낸다. 이로 보아 준경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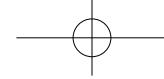
준경의 성격을 ‘목표’, ‘포기하지 않음’, ‘노력’ 등의 의미를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상
준경의 성격을 ‘목표’, ‘포기하지 않음’, ‘노력’ 중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중
준경의 성격을 ‘목표’, ‘포기하지 않음’, ‘노력’ 중 한 가지의 의미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 12 [A]에서 홍보과장이 준경이 양원역을 만들려고 애쓰는 진짜 이유를 아냐며 태윤에게 질문하는데, 이에 대해 [B]에서 준경의 말을 통해 진짜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A]에서 드러난 단서, 준경이 양원역을 만들려고 애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 [B]에서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며, 단서를 바탕으로 인물의 생각이 확장된 것은 아니다.
 ③ [A]에서 준경이 양원역을 만들려고 애쓰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음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B]에서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
 ④ [A]는 홍보과장이 태윤에게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B]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제시된 것이다. 준경이 [A]의 의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
 ⑤ [A]에서 형성된 긴장감은 홍보과장과 태윤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B]는 이 갈등의 해소와는 관련이 없다.

- 13 보경이 태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⑦이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S# 91에서 화가 난 준경의 표정을 통해, 태윤이 역에 열차를 세우지 않음으로써 준경과 태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S# 92를 통해 태윤이 역에 열차를 세우지 않은 것은 규



정을 중시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③ 마을 사람들은 역에 열차가 설 것을 기대했으므로, ⑦은 예상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④ S# 92에 제시된 박 기사의 말에서 알 수 있다.

14 ⑦은 박 기사가 태윤에게 잡지를 보여 줌으로써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므로,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5 태윤은 준경의 엄마와 누나가 죽은 것은 열차 때문인데, 왜 준경이 탓으로 기사를 썼냐며 홍보과장에게 화를 내고 있다. 이에 홍보과장은 자신들이 지어서 쓴 것이 아니라 준경이 직접 한 말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준경이 엄마와 누나가 죽게 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엄마와 누나의 죽음에 대한 준경의 생각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엄마와 누나의 죽음에 대한 준경의 생각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엄마와 누나의 죽음에 대한 준경의 생각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찾아지면서 자동차의 편리(어디로든 데려다줌.)와 안락함(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음.)에 길들여져 갔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글쓴이가 자동차에 길들여지는 과정을 자동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글쓴이가 자동차에 길들여지는 과정을 서술하였으나, 자동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중
글쓴이가 자동차에 길들여지는 과정을 서술하였으나, 인식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84~85쪽

01. ① 02. ⑤ 03. ③ 04. 자동차로 많은 풀벌레들을 죽여 한 경험을 하면서 인간에게 편리한 자동차가 다른 생명뿐 아니라 인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01 글쓴이는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보며 죄의식을 느끼고,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운전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폴리 | ② 글쓴이는 풀 비린내 사건으로 문명의 이기 때문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된 생명체의 모습을 목격하고 죄의식을 느낀다. 따라서 자동차가 초래할 폭력적 결과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손을 씻는 것은 풀벌레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씻어 내기 위한 행동이므로 글쓴이의 죄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④ 편리함 때문에 문명을 이용하는 모든 현대인은 풀벌레들의 죽음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자동차는 물고 다니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체에 위협이 되므로, 글쓴이는 자동차를 소유하고부터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02 글쓴이는 자동차 운전을 하며 의도치 않게 다른 생명체를 죽인 경험이 모든 운전자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

| 오답 폴리 | ① 글쓴이는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에서 나는 풀 비린내를 맡으며 자동차로 다른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② 글쓴이는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생물들을 존중하는 티베트 승려들의 모습에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태도에 공감하고, 자동차를 물고 다니며 살생 행위를 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③ 차를 소유하되 종속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생태적 실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④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고 있다.

(4) 교술 갈래의 이해

확인 문제 01

본문 82~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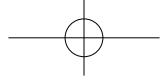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01. ② 02. ④ 03. ⑤ 04. 운전 초기에는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예민하게 느끼다가, 필요에 따라 운전을 하는 일이 찾아지면서 점차 자동차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길들여져 갔다.

01 이 글의 글쓴이는 생태주의자인 에민 템스름의 말을 인용하여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ㄱ).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며 겪은 경험과 그 속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개성적으로 서술하고 있다(ㄷ).

02 글쓴이는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자동차의 밀폐된 공간에 길들여져 가며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을 느끼게 되었다.

03 ⑦은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태도가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밤에 고속 도로를 달리면서 차창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경험과 관련된다. 복잡한 도시에서의 운전과는 관련이 없다.

04 글쓴이는 운전 초기에는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가 필요에 따라 차를 운전하는 일이



이것만은 알고 가기 생태주의와 생태주의 문학

생태주의는 전통적인 환경주의보다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사상이다. 이러한 생태주의와 관련된 문학이 생태주의 문학이다. 생태주의 문학은 자연을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이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태학적 세계관을 담은 문학 작품을 말한다. 생태주의 문학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생물학적 약자의 편에서 종의 다양성을 옹호하며 공존의 법칙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3 글쓴이는 인간에게 편리한 자동차가 다른 생명체를 해칠 수 있으며, 인간이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졌을 때 문명의 이기가 풀벌레뿐 아니라 인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글쓴이는 자동차로 인해 많은 풀벌레들이 죽은 잔해를 발견한 이후에 편리하게만 여겼던 자동차가 자연은 물론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서술형 평가 기준|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사건과 깨달음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사건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깨달음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중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사건만 간략하게 서술한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91~92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5. ① 06. ⑤ 07. 달팽이의 뿔과 쇠뿔은 크기는 다르지만 뿔이라는 본질이 같다. 08. ④

01 (가)의 글쓴이는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이 지녔던 태도, 즉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에 공감하면서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크기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만 해당한다.

② (가)에만 해당한다.

③ (나)에 크기가 큰 동물과 작은 동물이라는 대조적 성격의 소재가 나타나 있다.

④ (가)가 문명의 이기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나)가 자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6 정답과 해설

02 (가)의 글쓴이는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글쓴이는 큰 동물이나 작은 동물이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본질은 같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의 글쓴이 역시 작은 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③ 생태주의적 삶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가)의 글쓴이이다.

④ (가)와 (나)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⑤ (나)의 글쓴이는 모든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03 글쓴이는 밤에 고속 도로를 달리면서 자동차로 인해 많은 풀벌레들이 죽게 된 일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속도 변화에 따라 얼마나 많은 풀벌레들이 죽게 되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04 글쓴이는 풀벌레의 죽음에 관한 경험을 한 이후 자동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즉 자동차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은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사용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05 ‘편리와 불안’은 글쓴이가 처음 운전을 했을 때 자동차에 대해 느끼던 심리를 의미한다. 나머지는 모두 글쓴이가 밤에 운전을 한 후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받은 충격과 죄책감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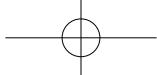
06 글쓴이가 풀벌레들이 죽은 잔해를 치운 후 손을 계속 씻은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많은 풀벌레들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이 강하게 남아 있어 이를 지우기 위해서이다.

07 달팽이의 뿔은 ‘이’에, 쇠뿔은 ‘개’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②은 달팽이 뿔과 쇠뿔이 외형적으로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뿔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음을 강조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외형은 다르지만 뿔이라는 본질이 같음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상
외형의 차이를 제외하고 뿔이라는 본질이 같음을 서술한 경우	중
외형의 차이만 단편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08 ‘그 사람’(⑥)은 대상의 크기만 가지고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①)는 대상의 크기와 같은 외형은 중요하지 않고 그 대상이 지닌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그 사람’이 대상의 겉모습만 중시한다면, ‘나’는 대상의 본질을 퀘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96~101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④ 05. ② 06. ① 07. ②
 08. ③ 09. ⑤ 10. ④ 11. ③ 12. ⑤ 13. ④ 14. ②
 는 준경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주지만, 준경이 태운의 속마음
 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15. ③
 16. ⑤ 17. ④

01 (가)는 독백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ㅂ니다’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와 대상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나)는 대상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② (가)는 사랑하는 대상을 ‘배’에 빗대고 있으며, (나)는 ‘나’와 ‘당신’을 각각 ‘나룻배’와 ‘행인’에 빗대고 있다.

③ (가)에서는 ‘구름과 빛과 시간’이라는 시구를 반복하고 있고, (나)에서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가)의 5연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묘사하면서 사랑의 기쁨과 설렘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나)는 1연과 5연에 같은 연을 배치하는 수미상관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02 (나)의 화자는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고 있다고 말하며 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의 화자가 가진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03 (가)의 ‘배’는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하지만, (나)의 ‘나룻배’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를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② (가)의 1연에는 멀리서부터 닿는, 바닷물 위를 움직이는 ‘배’의 이미지가, 3연과 5연에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나)의 2연에는 당신을 태우고 물을 건너는 ‘나룻배’의 이미지가, 3~4연에는 당신을 기다리며 떠 있는 ‘나룻배’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③ (가)의 ‘배’는 화자에게 찾아온 사랑인 반면, (나)의 ‘나룻배’는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며 당신을 그리워하는 존재이다.

④ (가)의 ‘배’는 화자가 있는 곳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존재이다. 이와 달리 (나)의 ‘나룻배’는 ‘바람’, ‘눈비’의 시련을 견디며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낚아 가는 존재이다.

⑤ (가)의 ‘배’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고, (나)의 ‘나룻배’는 당신을 태우고 물을 건너가는 배의 본연의 기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4 (가)에는 계절을 알 수 있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으나, (나)는 봄이라는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1연에 시적 화자 ‘나’가 등장하고, (나)에서는 1인칭 서술자 ‘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가)의 화자와 (나)의 서술자는 작품의 표면에 나타난다.

② (가)에서는 ‘배’에 빗대어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면, (나)에서는 ‘감참외’에 빗대어 ‘나’가 사랑하는 사람인 점순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의 ‘울렁이며’와 (나)의 ‘울렁울렁하고’는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⑤ (가)는 서정 갈래로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나)는 서사 갈래로 서술자의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활용하여 사건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05 ④는 ‘나’가 장인의 소를 때리고 있는 장면인데, ④의 뒤에 이어서 소를 때린 이유가 점심을 가지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06 ④의 앞부분에서는 아무 소리도 말도 없이 밧줄이 날아오고, ④의 뒷부분에서는 화자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고 있다. 밧줄은 사랑의 인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이를 잡기 위해 뛰어간다. 따라서 ④는 사랑의 인연에 대한 반기운의 정서가 투영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날아온 인연의 밧줄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⑥에서 ‘넋 놓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로, 사랑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음을 보여 준다.

③ ④는 사랑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④ ④는 봄볕에 마음이 설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⑤ ④는 상대방인 ‘나’가 들으라고 일부러 한 행동이다.

07 ‘나’가 점순이와 대화하고 난 뒤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으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심화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성례 문제를 두고 ‘나’는 소극적인 태도를, 점순이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인물 간의 태도 차이가 나타난다.



③ 뭉태가 ‘나’에게 장인네 사정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에서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나’가 뭉태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이유에 대해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의 내면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또 점순이의 비난을 들은 뒤 ‘나’의 심리 상태도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⑤ ‘나’가 점순이에게 ‘바보’라는 말을 들은 뒤 자신을 ‘에미 잃은 황새 새끼’에 비유한 표현을 통해 의지할 데 없이 가여운 자신의 신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8 ⑦은 뭉태가 어수룩한 ‘나’에게 점순네 가정사를 요약하여 분석해 주는 내용으로 ‘나’가 현재 성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많은 데릴사위를 바꿔들인 이유는 장인이 일 잘하는 사위를 고르기 위한 것으로, 딸들이 남자를 고르는 눈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다.

09 점순이는 ‘나’가 장인에게 성례를 빨리 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바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구장에게 가서 담판을 짓겠다고 했을 때 성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점순이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0 인물의 대사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줄임표는 상대방에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인물의 심리적 정황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밤과 낮의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나, 밤은 현재의 시간, 낮은 과거의 시간으로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태윤과 준경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심화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인물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암시하는 음향 효과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보경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의 인과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과거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사건으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아니다.

⑤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부분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준경은 아버지가 누나의 사고 원인을 숨겨 온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S# 120은 현재의 시점이고 S# 119는 사고가 있었던 과거를 회상한 장면이다. 따라서 S# 120이 S# 119와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18 정답과 해설

13 ④은 ④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④은 ④이 발생하기 전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14 누나의 죽음과 관련된 ④는 준경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주었지만, 준경이 태윤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보기〉를 참고하여 갈등의 전개 과정 측면에서 ④가 지닌 서사적 기능을 ④를 듣는 준경의 심리와 관련지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④의 서사적 기능을 ④를 듣는 준경의 심리와 관련지어 서술하였으나, 〈보기〉를 참고한 서술이 아닌 경우	중
④를 듣는 준경의 심리만 서술한 경우	하

15 (가)는 소설로, 각종 인물인 ‘나’는 작가가 만들어 낸 허구적인 인물이다. 이와 달리 (나)는 작가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쓴 수필로, 각종 인물인 ‘나’는 작자 자신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나’는 작품 속 주인공이면서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이고, (나)의 ‘나’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서술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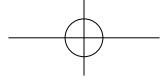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② (가)의 ‘나’는 관찰자가 아니라 작품의 주인공이다.

④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수룩한 면이 있는 것은 (가)의 ‘나’에만 해당한다.

⑤ (가)의 ‘나’와 (나)의 ‘나’는 모두 자신이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주관의 개입 없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가)는 ‘나’와 장인이 희극적인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과 싸움 이후의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상 몸싸움이 먼저이므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④이다. 그다음 이 일로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고(⑦) 장인이 손수 불솜으로 치료를 해 주고(⑧) 성례를 시켜 준다는 장인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까지 흘리며(⑨) 일터로 나간다(⑩).

17 (나)에서 글쓴이는 자동차로 인해 많은 풀벌레가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작은 생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2

다변화 시대, '나'의 길 찾기

(1)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확인 문제 01

본문 107쪽

01. ②

- 01** '신나게 살기'는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을 사는 것으로, 죽는 순간까지 장난기를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심오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확인 문제 02

본문 108~109쪽

01. ④

- 01** 진로 탐색을 위해 읽을 책의 목록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책이나 매체 자료를 선택할 것',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인 내용의 책이나 매체 자료는 피할 것', '주어진 시간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책이나 매체 자료를 선택할 것' 등이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담긴 내용의 책은 지나치게 어렵게 느껴져 진로 탐색 단계에서 참고할 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도서 목록 작성 시 유의할 점으로는 'ㄱ, ㄴ, ㄹ'이 적절하다.

확인 문제 03

본문 110~111쪽

01. ① 02. ④

- 01** (가)의 2문단에서 대부분의 경우 건축을 의뢰하는 건축주는 개인, 기업, 공공 단체라고 하였다.

- 02** (나)는 과거와 현대의 건축을 비교하며 현대 건축 분야의 흐름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고려할 때 현대 건축가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제는 '현대 건축의 흐름', 부제는 '현대 건축가에게 필요한 자세를 중심으로'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현대 건축에 나타난 새로운 건축 역량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건축가의 조건을 중심으로 건축에 대해 논하고 있지는 않다.

② 현대 건축의 특징에 따른 건축가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세상을 바꾸는 건축의 역할이나 건축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현대 건축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 건축가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제시하고 있을 뿐, 건축가의 역할과 건축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과거의 건축과 현대의 건축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건축의 역사를 중점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다.

확인 문제 04

본문 112~113쪽

01. ④

- 01** 아파트가 단순히 '땅콩집'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삶의 추억을 쌓기 어렵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 오답 풀이 | ① '행복한 집'이란 삶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집을 뜻한다.
- ② 미래의 건축은 실용보다 가치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③ '집은 크고 예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공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의 말을 통해 집의 가치는 집의 규모나 외관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땅콩집'은 이웃과 함께할 수 있기에 추억을 만들기 좋은 행복한 집이라고 하였다.

확인 문제 05

본문 114~115쪽

01.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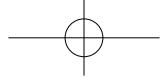
- 01**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만을 간결하게 제공하고, 핵심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활용한 정보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하나의 매체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좋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17~118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⑧ 우리 시대의 이상과 현실, ⑨ 조율 06. ③ 07. 건축(집)에 가치를 담을 줄 알아야 한다.

- 01** 진로 독서를 할 때에는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찾아 주제 통합적으로 읽으면서 진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선정한 책이나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되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선정한 책이나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고 읽기 목적으로 어울리는 부분을 선정하여 꼼꼼하게 읽어도 된다.



- 02** 이 글은 신나게 살기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으나, 대상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⑤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②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넬슨 만델라 등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심리학자의 연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03** 이 글에서는 ‘몰두하며 살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하루 스물네 시간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삶에서 매 순간 몰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ㄱ. 의미 있게 사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 혁신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
 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지난 공통적 삶의 태도로 ‘신나게 살기’를 말하고 있다.
 ㄹ.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04** (가)는 건축가가 하는 일과 지녀야 할 역량, (나)는 현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다)는 미래 건축가의 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 모두 현대 건축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건축가가 시대의 요구를 고민하고 건축에 관한 모든 요구를 조율해야 함을, (나)에서는 현대 건축이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을, (다)에서는 미래의 건축가가 실용보다 가치를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를 통해 건축가는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는 건축가의 역할과 건축가에게 필요한 역량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과거와 현대 건축의 차이점을 대조하며 현대 건축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다) 모두 건축가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 05**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건축가는 우리 시대의 이상과 현실을 반영하여 시대가 품고 있는 진보적이고 유용한 기술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가는 의뢰인의 요구에 자신의 창작 의지를 더하고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건축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06** (나)의 2문단을 참고할 때, 건축 디자인의 과정이 좀 더 횡적 특성을 띠게 된 것은 과거의 건축이 아니라 현대 건축에서 새롭게 나타나게 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 07** (다)에서 집은 크고 예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마당과 좁은 다락처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앞으로의 건축은 실용보다 가치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건축가는 건축(집)에 가치를 담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핵심어 ‘가치’를 포함하여 미래 건축가의 조건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핵심어 ‘가치’를 포함하지 않고 미래 건축가의 조건을 서술한 경우	중
미래 건축가의 조건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2) 다양한 색깔을 존중하는 사회

확인 문제 01

본문 122~123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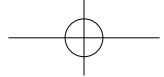
- 01** 이 글의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와의 대화에서 들은 내용이 글을 쓰게 된 계기라고 밝히고 있다. 할러데이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글쓴이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가 할러데이 교수의 견해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펼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글쓴이의 대학 시절에 대한 회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글쓴이가 특정 단어의 개념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가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을 전해 들고 있을 뿐, 본인이 직접 겪은 부당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02**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인인 글쓴이와는 달리 미국 국적을 지닌 외국인이다.

- 03**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은 한국어를 못한다는 고정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고정 관념이 있다고 하였다.

②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간주하는 고정 관념이 있다고 하였다.

④ 한국 사람들은 외모, 즉 생김새가 일반적인 한국 사람과 다를 경우 쉽게 외국인이라고 판단하는 고정 관념이 있다고 하였다.

⑤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적 정체성을 판단 근거로 삼아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고정 관념이 있다고 하였다.

- 04** 할레이 교수는 유명 관광지에 가서 여행 정보를 얻고자 관광 안내소를 들렸다고 하였다.

확인 문제 02

본문 124~125쪽

01. ② 02. ① 03. 사용자들의 배경과 관점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공급자의 관점만을 반영하여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 01** 글쓴이는 ‘그냥 비치하지 않고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하여 비치한 것은 나름대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한 안내 책자 분류 방식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소외감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분류를 했을 리는 없다.’라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외국인을 위해 만든 안내 책자는 한국어로 쓰면 모를 테니 국제어적 성격이 강한 영어로 친절하게 써서 안내’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④ 글쓴이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관광 안내소에 비치하는 일은 그 자체로 친절을 베푸는 일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⑤ 글쓴이는 ‘한국어 안내 책자는 내국인을 위해 만들었으니 내국인용이라는 표지를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

- 02** 글쓴이는 만약 사용자가 한국어가 편한 내국인이거나 영어가 편한 외국인이라면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②, ③, ④, ⑤ 모두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했을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들이다.

- 03** 글쓴이는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한 것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공급자의 관점만을 반영한 결과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

안내 책자 분류 방식이 지닌 문제의 원인이 사용자의 관점이 아닌 공급자의 관점 때문임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
안내 책자 분류 방식이 지닌 문제의 원인을 공급자의 관점 때문이라고만 간략하게 서술한 경우	중
안내 책자의 분류 방식만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3

본문 126~127쪽

01. ① 02. ⑤ 03. ⑤ 04.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문제와 남북한 언어 실천의 이질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01** 이 글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색깔’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이 글에서는 모순된 내용이나 표현이 사용되는 역설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③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실제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을 열거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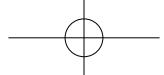
- 02** 글쓴이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에 대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색깔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받고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 03**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다수가 지닌 외형적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면 아주 쉽게 외국인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라고 밝히고 있다.

- 04**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문제, 남북한 언어 실천의 이질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

문제 상황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문제 상황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문제 상황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35~138쪽

01. ④ 02. 할러데이 교수로부터 안내 책자 분류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03. ③ 04. ④
 05.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언어가 되어야 한다. 06. ③
 07. ④ 08.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하는 방식에는 사용자의 다양한 배경이나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공급자의 관점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09. ③ 10. ④ 11. ⑤ 12. ② 13. ③
 14. ④ 15.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이 정보 전달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

01 이 글에서는 ‘한국어를 못하는 내국인은 내국인이 아닌가? 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외국인용 표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언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와 같은 의문문 형식을 활용하여 중심 화제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한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고정 관념을 설명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한 관점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② 글쓴이가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았던 경험에 대한 고백적 진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할러데이 교수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으로부터 떠올린 생각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에서 감탄문의 형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글쓴이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02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가 겪은 어느 관광 안내소의 안내 책자 분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계기가 된 일과 그때 느낀 글쓴이의 정서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계기가 된 일과 그때 느낀 글쓴이의 정서를 서술하였으나, 계기가 된 일을 할러데이 교수의 이야기로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중
계기가 된 일이나 글쓴이의 정서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하

03 글쓴이인 ‘나’는 할러데이 교수가 이야기한, 한국인들이 외모가 일반적인 한국 사람과 다르면 쉽게 외국인이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말을 전하고 있을 뿐, 자신이 외모를 기준으로 외국인을 판단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04 할러데이 교수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안내 책자 분류 방식이 마치 “당신은 이 안내 책자를 집을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 방식은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할러데이 교수가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② 할러데이 교수는 외국인용 안내 책자를 통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안내 책자를 통해 관광지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할러데이 교수가 외국인도 내국인용 안내 책자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항의할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⑤ 할러데이 교수가 외국인용 안내 책자부터 살펴본 다음에 내국인용 안내 책자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⑦에 담겨 있는 생각과 거리가 멀다.

05 글쓴이는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이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언어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안내 책자 분류 기준이 국적이 아닌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
안내 책자 분류 기준이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중
안내 책자 분류 기준이 국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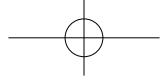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06 글쓴이가 안내 책자를 분류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안내 책자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하여 비치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② 글쓴이는 ‘색깔’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참신하게 전달하고 있다.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답게 빛날 수 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색깔을 존중하여 그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외형적 특징이 다르고 한국어 사용이 서툴거나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을 모두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편견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리가 지닌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에 맞추어 언어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관광 안내 책자가 국적으로 분류된 것은 외국



인에 대한 편견을 지닌 공급자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라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07 글쓴이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 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단일하고 확고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08 문맥상 ‘완전히 다른 이야기’는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안내 책자를 접어 드는 사람의 관점, 즉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나누어 비치한 안내 책자 분류 방식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안내 책자의 분류 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관점, 공급자의 관점이 드러나도록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
안내 책자의 분류 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관점이나 공급자의 관점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안내 책자의 분류 방식만 서술한 경우	하

09 <보기>의 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이탈 주민의 ‘일없습니다.’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단호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는 남북이 분단된 지 오래되어 남북 한 언어가 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②, ④ 우리말에서 ‘일없습니다.’는 대개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북한 이탈 주민의 말을 우리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남북한 언어 이질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한 언어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10 [A]는 안내 책자의 분류 방식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내 책자의 분류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11 ‘가치를 깎아내림.’은 ‘폄하’의 사전적 의미이다. ‘치부’는 ‘마음속으로 그려하다고 보거나 여김.’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비치’는 ‘마련하여 갖추어 둠.’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② ‘편의’는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음.’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③ ‘표지’는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④ ‘이견’은 ‘어떠한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 또는 서로 다른 의견.’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12 <보기>에는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 경험한 차별적 인식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차별적 상황에 대해 이 글의 글쓴이가 의사소통 방식이 같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④ 글쓴이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글쓴이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들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해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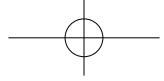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13 (나)는 지역을 기준으로 언어 공동체가 형성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재미있다’라는 의미의 말이 다르게 쓰이고 있다. 즉 지역 방언의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A는 ‘내 어휘력이 풍부해지는 느낌이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방언이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 준다는 긍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말이다. 따라서 지역 방언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⑤ (가)~(다)에는 언어 공동체의 다양한 언어 실천 양상이 드러나 있다. 특히 (가)는 성별, (다)는 세대의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에는 직업과 관련하여 남녀의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이 언어에 반영된 예가 제시되어 있다.

④ (다)는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신조어가 드라마에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사례를 바탕으로 신조어가 우리의 언어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4 (가)의 실험에서 피실험자들 중 의사가 소년의 어머니라고 선뜻 대답한 사람이 적은 이유는 외과 의사가 당연히 남성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직업과 관련하여 남녀의 성 역할을 구분 짓는 고정 관념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15** (다)의 마지막 문장으로 보아, 10대와 20대가 외래어와 신조어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정보 전달에 효과적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래어와 신조어를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다른 세대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10대와 20대의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의 이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10대와 20대의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의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그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중
10대와 20대의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의 이유만 서술한 경우	하

를 이해하고 건축물을 평가하고 분석한 데 비해, 현대의 건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정량적인 수치로 분석한다고 하였다.

- 03** ⑦은 과거 건축에는 없었던 것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소프트웨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바라보는 현대 건축의 시각을 의미한다. ⑧은 수직적 구조의 건축과는 다른 현대 건축의 경향으로, 디자인 초기부터 환경 공학자, 구조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가 서로 협조하는 횡적이고 복합적인 건축 디자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⑦과 ⑧이 지시하는 의미를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
⑦과 ⑧이 지시하는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중
⑦과 ⑧이 지시하는 의미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하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42~145쪽

- 01. ④ 02. ⑤ 03. ⑦**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소프트웨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⑧ 디자인 초기부터 환경 공학자, 구조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가 서로 협조하는 횡적이고 복합적인 건축 디자인 시스템 **04. ⑤ 05. ⑥ 06. 외적인 측면에서 외모가 일반적인 한국 사람과 다르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언어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은 영어를 할 줄 알지만,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07. ⑤ 08. ④ 09. ④ 10. ④ 11. ⑤ 12. ③ 13. 우리가 지닌 고정 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색깔을 존중해야 한다.**

- 01** (다)에서는 땅콩집이 아파트보다 작지만 이웃과 함께할 수 있어 추억을 만들기 좋은 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건축이 실용보다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설명하고 두 입장을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⑩).

- 02** (다)는 미래의 건축가가 지녀야 할 조건을 말하고 있을 뿐, 미래 유망 직업으로서 건축가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가)와 (나)도 미래 유망 직업으로서의 건축가의 장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건축가의 일반적 개념을 우리 시대의 이상과 현실을 반영하여 시대가 품고 있는 진보적이고 유용한 기술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제시하였다.

② (가)에서는 건축가에게 창작 의지와 더불어 건축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는 현대 건축가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는 과거의 건축이 전통적인 가치로 건축의 역사

- 04** (가)와 (나) 모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글쓴이가 할러데이 교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② (나)는 ‘-ㅂ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말을 전네는 듯한 어조로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할러데이 교수가 분석한 ‘한국인이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민족이 아닌 사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라며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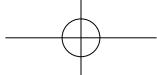
④ (나)의 글쓴이는 자신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직접 느낀 차별적 시선에 대한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 05** 글쓴이는 할러데이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하면 즐거워진다고 말하고 있다.

- 06** 할러데이 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 외적인 측면에서 외모가 일반적인 한국 사람과 다르면 외국인으로 여기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과 ‘외국인은 한국어를 못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서술형 평가 기준|

⑦을 외적인 측면과 언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⑦을 외적인 측면과 언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모두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⑦을 외적인 측면과 언어적인 측면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하



07 (나)의 글쓴이는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까 봐’, 즉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특유한 억양 때문에 자신이 외국 국적 자라는 것을 알고 차별적 시선을 보낼까 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휴대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언어적 의사 소통은 된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적 시선을 받게 될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

③ 글쓴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④ 글쓴이가 휴대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니다.

08 이 글은 안내 책자를 공급한 측에서 어떤 판단으로 국적에 따른 분류 방식을 취하게 되었는지 추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안내 책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안내 책자 분류 방식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을 균형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09 4문단의 ‘외국인을 위해 만든 안내 책자는 한국어로 쓰면 모를 테니’를 참고할 때, 외국인을 위해 만든 안내 책자를 한국어로 표기하여 제공할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⑦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0 ⑦은 외국인은 이러할 것이라는 편견을 지닌 공급자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안내 책자를 집어 드는 사람들은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의 관점만을 중시한 결과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가)는 마지막 문단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공동체가 변화함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언어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는 파키스탄 학생의 사례를 들어 문화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한두 가지 색깔로만 꽉 채워진 단조로운 미래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파키스탄 학생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여러 나라 출신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닌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③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과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들만 모여 살던 나라에서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남북한 언어 실천의 이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언어 주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는 남북한 언어 실천의 이질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2 ⑦은 대한민국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씨가 일반적인 우리말의 말투와 다를지라도 쉽게 외국인으로 속단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어떤 사람의 이전 국적이나 그 부모가 지닌 국적만을 근거로 삼아 외국인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므로, ⑦의 사례로 적절하다.

④, ⑤ 어떤 사람의 외형적 특징이나 한국어 구사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인의 경우와 다르다고 해서 외국인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므로, ⑦의 사례로 적절하다.

13 (가)에서 글쓴이는 대한민국은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어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색깔을 존중하고, 그 색깔들이 서로 조화롭게 빛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⑦은 우리나라에서의 주말이 파키스탄에서는 ‘목요일’에 해당한다는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의 관점에서 ⑦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고정 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색깔을 존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가)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⑦의 극복 방안을 비유적 표현을 포함하여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
(가)의 관점을 비유적 표현을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나, ⑦의 극복 방안을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중
비유적 표현을 포함하였으나, (가)의 관점과 ⑦의 극복 방안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3 바르고 슬기로운 우리말 사용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확인 문제 01

본문 152~153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② 05. ②

01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발음이 바뀌더라도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 오답 풀이 | ②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탈락’의 경우, 음운 변동의 결과로 원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다.
③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탈락’, ‘첨가’, ‘축약’의 경우에는 전체 음운의 개수가 달라진다.
④ 음운 변동의 유형인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⑤ 음운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놓이느냐에 따라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 적용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이 달라진다.

02 ‘비읍’은 [비읍]으로 발음되므로 받침 표기와 실제 발음이 동일하다.

- | 오답 풀이 | ① ‘밖’은 [박]으로 발음된다.
② ‘낫’은 [낟]으로 발음된다.
③ ‘덫’은 [摭]으로 발음된다.
④ ‘부엌’은 [부억]으로 발음된다.

03 ‘난로[낟:로]’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로,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난 것이다.

- | 오답 풀이 | ① ‘먹물[멍물]’은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로, 파열음인 ‘ㄱ’이 비음인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이다.
② ‘닫는다[단는다]’는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로, 파열음인 ‘ㄷ’이 비음인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이다.
③ ‘밥물[밤물]’은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로, 파열음인 ‘ㅂ’이 비음인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이다.
④ ‘겁내다[겁내다]’는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로, 파열음인 ‘ㅂ’이 비음인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이다.

04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받침소리를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꼬시]가 아닌

[꼬치]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곶’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꼰]으로 발음된다.

③ ‘있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의 과정을 거쳐 [인는 → 인는]으로 발음된다.

④ ‘잎이’에서 받침 ‘ㅍ’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그대로 연음되어 [이피]로 발음된다.

⑤ ‘옷 위’의 받침 ‘ㅅ’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뀐 후에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져 [오두]로 발음된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 받침 발음의 연음

•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받침소리를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깎아[까끼]	웃이[으시]	있어[이씨]
낫이[나지]	꽃아[꼬자]	꽃을[꼬줄]
쫓아[쪼차]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단,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넉씨]	앉아[안자]	닭을[달글]
짊어[절머]	핥아[핥타]	읊어[읊퍼]
값을[깁쓸]	없어[업:씨]	굵이[골씨]

•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를 만나면 받침소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자음군 단순화 과정을 거친 뒤 대표음을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밭 아래[바다래] 배꽃 위[배꼬두] 무릎 아래[무르바래]

05 ‘진리[질리]’는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뀌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는 역행적 유음화이고, ①, ③, ④, ⑤는 순행적 유음화이다.

확인 문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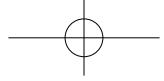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본문 154~155쪽

01. ⑦, ⑧ 02. ⑤ 03. ④ 04. ‘국수’, 받침 ‘ㄱ’ 뒤에 ‘ㅅ’이 연결될 때 예사소리 ‘ㅅ’이 ‘ㄱ’의 영향으로 된소리 [ㅆ]으로 바뀌어 [국쑤]로 발음된다.

01 ⑦의 ‘발동(發動)’은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의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적용되어 [발뚱]으로 발음된다. ⑧의 ‘발바닥’은 합성어에서의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예로 [발빠닥]으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⑦ ‘정도’는 [정도]로 발음된다.

⑧ ‘옮기다’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예로 [옮기다]로 발음된다.



02 ‘신기다’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예로 이 경우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끼다]는 잘못된 발음이고, [신기다]로 발음해야 적절하다. 이때 ‘신기다’를 [신기다]로 발음하는 것은 제24항 ‘다만’의 예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⑦ ‘별이[벼치]’는 받침 ‘ㅌ’이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어 [ㅊ]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제17항의 예로 적절하다.

② ⑨ ‘국밥[국쩝]’은 ‘ㄱ’ 뒤에 연결되는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제23항의 예로 적절하다.

③ ⑨ ‘닭장[닭짱]’은 받침 ‘ㄹ’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제23항의 예로 적절하다.

④ ⑨ ‘넘게[넘:께]’는 어간 받침 ‘ㅁ’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제24항의 예로 적절하다.

03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ㅓ[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런데 ‘곧이어’는 실질 형태소인 ‘곧’ 뒤에 실질 형태소인 ‘이-(잇다)’의 어간 ‘잇-’이 이어지므로 구개음화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음하여 [고디어]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⑤ ‘같이[가치]’, ‘밭이[바치]’는 받침 ‘ㅌ’이 모음 ‘ㅣ’를 만나 [ㅊ]으로 발음된 예이다.

②, ③ ‘해돋이[해도지]’, ‘굳이[구지]’는 받침 ‘ㄷ’이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발음된 예이다.

04 ‘국수[국쑤]’는 받침 ‘ㄱ’ 뒤에 ‘ㅅ’이 연결될 때 예사소리 ‘ㅅ’이 된소리 [ㅆ]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끓여’, ‘딱’은 표기에 된소리가 쓰였을 뿐이며, 발음할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를 찾고, 된소리되기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상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를 찾았으나, 된소리되기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중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만 찾은 경우	하

01 용언 어간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ㅎ’이 탈락하므로 ⑦은 [너이]로 발음하고, ⑨은 [마느니까]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⑨ ‘철학’은 ‘ㅎ’ 탈락의 조건과 무관한 단어이므로 ‘ㅎ’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철학]으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⑨ ‘쌓이다’는 용언 어간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예로 ‘ㅎ’이 탈락하여 [싸이다]로 발음한다.

02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 ‘ㅏ /ㅓ’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ㅡ’ 탈락이 일어난다. 이에 따르면 ‘잠그---아’는 ‘잠가’로 표기한다.

03 ‘넓-’으로 시작된 합성어인 ‘넓둥글다’는 [넙뚱글다]로, 파생 어인 ‘넓적하다’는 [넙찌카다]로 발음한다. ‘넓-’은 받침 ‘ㄹ’의 뒤 자음인 [ㅂ]으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① ⑦에 제시된 단어들은 용언 어간의 겹받침 ‘리’이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된 예이다.

② ⑨에 제시된 ‘읽다[익따]’는 ‘리’이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된 예이고, ‘흙[흑]’은 어말에서 [ㄱ]으로 발음된 예이다.

③ ⑨에 제시된 ‘여덟[여델]’은 ‘ㄹ’이 어말에서 [ㄹ]로 발음된 예이고, ‘넓다[널띠]’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된 예이다.

⑤ ‘ㄹ’은 일반적으로 ⑨과 같이 [ㄹ]로 발음되나, ‘밟-’의 종성인 ‘ㄹ’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된다.

04 겹받침 ‘리’은 일반적으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 어간의 겹받침 ‘리’은 ‘ㄱ’ 앞에서는 ‘ㄱ’이 탈락하고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밟다’는 ‘리’ 뒤에 자음 ‘ㄷ’이 오므로 [막따]로, ‘맑고’는 ‘리’ 뒤에 ‘ㄱ’이 오므로 [말꼬]로 발음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맑다’와 ‘맑고’의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쓰고, 이유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맑다’와 ‘맑고’의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썼으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중
‘맑다’와 ‘맑고’의 표준 발음만 정확하게 쓴 경우	하

확인 문제 03

본문 156~1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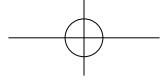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01. ⑦, ⑨ 02. ③ 03. ④ 04. ‘맑다’의 표준 발음은 [막따]이고, ‘맑고’의 표준 발음은 [말꼬]이다. 겹받침 ‘리’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으로 발음하지만, 용언 어간의 겹받침 ‘리’은 ‘ㄱ’ 앞에서는 ‘ㄱ’이 탈락하고 [ㄹ]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확인 문제 04

본문 158~159쪽

01. ① 02. ④ 03. ⑤

- 01 ‘ㄴ’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은 복합어 중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ㅣ’나 반모음 ‘ㅓ[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에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② ‘첨가’란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추가되는 현상이다.

- ③ ‘내복약’은 [내:봉냑]으로 발음되는데, 없던 ‘ㄴ’이 추가된 것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
- ④ ‘한 일’은 [한닐]로 발음되는데, 이와 같이 두 단어로 된 말을 이어서 발음할 때 ‘ㄴ’ 첨자가 일어나기도 한다.
- ⑤ ‘피어’는 [피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 ‘ㅣ[j]’가 첨가된 [피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02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반모음 첨가 현상에 따라 ‘아니오’는 [아녀요]가 아니라 [아니요]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뛰어[뛰여]’는 ‘뉘’와 ‘ㅓ’ 사이에, ② ‘되어[되어]’는 ‘뇌’와 ‘ㅓ’ 사이에, ③ ‘피어서[피여서]’는 ‘ㅣ’와 ‘ㅓ’ 사이에, ⑤ ‘사람이오[사라미요]’는 ‘ㅣ’와 ‘ㅗ’ 사이에 반모음 ‘ㅣ[j]’가 첨가된 것이다.

03 ‘ㄴ’ 첨가는 필수적인 음운 변동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금요일’이 그 예이다. ‘금요일’은 ‘ㄴ’ 첨자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묘일]로 발음한다.

- | 오답 풀이 | ① ‘맨입’은 접사 ‘맨-’과 어근 ‘입’이 결합한 파생어로, ‘ㄴ’이 첨가되어 [맨닙]으로 발음한다.
- ② ‘꽃잎’은 어근 ‘꽃’과 어근 ‘잎’이 결합한 합성어로, ‘ㄴ’이 첨가되어 [꼰입 → 꼳닙]으로 발음한다.
 - ③ ‘식용유’는 어근 ‘식용’과 접사 ‘유’가 결합한 파생어로, ‘ㄴ’이 첨가되어 [시꽁뉴]로 발음한다.
 - ④ ‘솜이불’은 어근 ‘솜’과 어근 ‘이불’이 결합한 합성어로, ‘ㄴ’이 첨가되어 [솜:니불]로 발음한다.

확인 문제 05

본문 160~161쪽

01. ② 02. ④ 03. 맘형[마령], 많다[만타], 놓고[노코]

01 ‘많아’는 ‘ㅎ’이 탈락되므로 [마:나]로 발음한다. 따라서 ‘많아’는 ⑦의 적용을 받은 예가 아니다.

- | 오답 풀이 | ① ‘좋지’는 [조:치]로 발음되는데, 이는 ‘ㅎ’ 뒤에 ‘ㅈ’이 결합하여 [ㅊ]이 된 것이므로 ⑦의 예에 해당한다.
- ③ ‘축하’는 [추카]로, ‘굽히다’는 [구파다]로 발음되는데, 이는 받침 ‘ㄱ’, ‘ㅂ’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하여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⑦의 예로 적절하다.
 - ④ ‘먹히다’는 ⑦의 규정에 따라 [먹키다]로 발음한다. ‘ㄱ’과 ‘ㅎ’이 합쳐져 [ㅋ]이 되는 음운 변동의 결과로 전체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

⑤ ‘낮 한때’는 [나탄때]로 발음되는데, 이는 ‘낮’의 ‘ㅈ’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고, 이 [ㄷ]이 뒤에 이어지는 ‘ㅎ’과 결합하여 [ㅌ]이 된 예[낮한때 → 나탄때]이므로 ⑦의 예로 적절하다.

02 ‘앉히고’는 ‘ㅈ’과 ‘ㅎ’이 만나서 거센소리 [ㅊ]으로 바뀌므로 [안치고]로 발음한다.

- | 오답 풀이 | ① ‘좋던’은 ‘ㅎ’과 ‘ㄷ’이 만나서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므로 [조:턴]으로 발음한다.
- ② ‘닳지’는 ‘ㅎ’과 ‘ㅈ’이 만나서 거센소리 [ㅊ]으로 바뀌므로 [달치]로 발음한다.
 - ③ ‘국화’는 ‘ㄱ’과 ‘ㅎ’이 만나서 거센소리 [ㅋ]으로 바뀌므로 [구과]로 발음한다.
 - ⑤ ‘입히는’은 ‘ㅂ’과 ‘ㅎ’이 만나서 거센소리 [ㅍ]으로 바뀌므로 [이피는]으로 발음한다.

03 ‘말형’은 ‘ㄷ’과 ‘ㅎ’이 만나서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므로 [마령]으로 발음하고, ‘많다’는 ‘ㅎ’과 ‘ㄷ’이 만나서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므로 [만:타]로 발음한다. 또한 ‘놓고’는 ‘ㅎ’과 ‘ㄱ’이 만나서 거센소리 [ㅋ]으로 바뀌므로 [노코]로 발음한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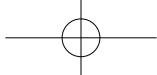
본문 167~170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안다’는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예사소리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 경우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안:띠]로 발음하지만, ‘안기다’는 시동 접미사 ‘-가’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지 않아 [안기다]로 발음한다.
 06. ③ 07. ⑤ 08. ④ 09. ② 10. ①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⑤ 16. ④ 17. ② 18. ②

01 (가)와 (다)에서 알 수 있듯이, 비음화는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ㄴ, ㅁ’의 영향으로 [ㅇ, ㄴ, ㅁ]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고, 유음화는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다. 따라서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축약이 아닌 교체에 해당한다.

02 <보기>의 단어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종성에 실제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 외에 나머지 자음이 오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소리가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 | 오답 풀이 | ①, ② <보기>의 단어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예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으로,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③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외에 나머지 자음이 오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소리가 바뀌어 발음되는 음운 변동이다.

④ ‘꽃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받침 ‘ㅊ’을 연음하여 [꼬출]로 발음한다.

03 ‘국물’이 [궁물], ‘굳는다’가 [군는다], ‘입는’이 [임는]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비음화이다. 비음화는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ㅁ’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따라서 ④에는 ‘파열음’, ⑤에는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4 ‘검열’의 발음이 [검:널/거:멸]의 두 가지로 허용되는 이유는 ‘ㄴ’ 첨가 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나 〈보기〉의 규정을 통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먹물’은 비음화가 일어나 [멍물]로 발음되는 데, (다)의 비음화 설명과 〈보기〉의 제18항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다.

② ‘물난리’는 유음화가 일어나 [물랄리]로 발음되므로, (다)의 유음화 설명과 〈보기〉의 제20항을 통해서 ‘유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표기대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할 수 있다.

③ ‘대관령’은 유음화가 일어나 [대:괄령]으로 발음되는데, (다)의 유음화 설명과 〈보기〉의 제20항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다.

⑤ ‘침략’은 비음화가 일어나 [침냑]으로 발음되는데, 〈보기〉의 제19항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다.

05 (가)에 따르면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된소리되기가 적용되는데,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다’는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예사소리 ‘ㄷ’이 온 경우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안:파]로 발음되지만, ‘(꽃다발을) 안다.’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안다’와 ‘안기다’를 (가)의 된소리되기 설명과 관련지어 각각의 발음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안다’와 ‘안기다’의 발음 이유 중 하나는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나머지 하나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중
‘안다’와 ‘안기다’의 발음 이유를 ‘된소리되기 때문이다’와 같이 음운 변동 유형만 언급한 경우	하

06 ‘쌓이다’는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가 오면서 어간의 받침 ‘ㅎ’이 탈락하여 [싸이다]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① ‘좋지’를 [조:치]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ㅈ’이 축약하여 [ㅊ]으로 발음하는 거센소리되기의 결과로, ‘ㅎ’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② ‘ㅎ’ 탈락은 용언의 어간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는 경우 일어난다. 그런데 ‘않는’은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닌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됐으므로 ‘ㅎ’ 탈락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않는’이 [안는]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의 결과에 해당한다.

④ ‘파랗다’를 [파:라타]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ㄷ’이 축약하여 [ㅌ]으로 발음하는 거센소리되기의 결과로, ‘ㅎ’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⑤ ‘놓지만’을 [노치만]으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ㅈ’이 축약하여 [ㅊ]으로 발음하는 거센소리되기의 결과로, ‘ㅎ’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07 ‘닭이다’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된 경우이다. 〈보기〉의 제14항에 따르면 뒤엣것만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달기다]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제10항을 보면 ‘ㅅ’은 어말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넋’은 [넉]으로 발음해야 한다.

② 제10항을 보면 ‘舛’은 어말에서 [舛]으로 발음하므로 ‘여덟’은 [여덜]로 발음해야 한다.

③ ‘읽을’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된 경우이다. 제14항을 따르면 뒤엣것만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일글]로 발음해야 한다.

④ ‘값이’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된 경우이다. 제14항에 따르면 뒤엣것만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는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감씨]로 발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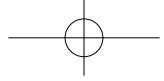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08 ‘손재주[손째주]’는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④이 적용된 예가 아니며, 합성 명사에서의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먹다[먹따]’는 받침 ‘ㄱ’ 뒤에서 ‘ㄷ’이 된소리가 된 것이므로 ④의 예로 적절하다.

② ‘밥상[밥쌍]’은 받침 ‘ㅂ’ 뒤에서 ‘ㅅ’이 된소리가 된 것이므로 ④의 예로 적절하다.

③ ‘남다[남:파]’는 ‘ㅁ’으로 끝난 용언 어간 뒤에 연결되는 어미 ‘ㄷ’이 된소리가 된 것이므로 ④의 예로 적절하다.

⑤ ‘신기다[신기다]’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단어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의 예로 적절하다.



09 ‘발일’은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일’이 온 예이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발일’은 음절의 끝 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로 [반일 → 반닐 → 반닐]의 과정을 거쳐 [반닐]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① ‘붙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부친]으로 발음한다.

③ ‘굳히다’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이 일어난 후 다시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구치다]로 발음한다.

④ ‘해돋이’는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해도지]로 발음한다.

⑤ ‘묻히고’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이 일어난 후 다시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무치고]로 발음한다.

10 ‘지쳐’가 [자:쳐]로 발음된 것은 ‘ㅈ, ㅊ, ㅋ’과 같은 경구개음 뒤에 반모음 ‘ㅣ [j]’가 연이어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단모음 ‘ㅓ’로 발음한 결과이지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결과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③, ④, ⑤ ‘뛰어’가 [뛰여]로, ‘되어’가 [되여]로, ‘시어’가 [시여]로, ‘개어’가 [개여]로 발음된 것은 반모음 ‘ㅣ [j]’가 첨가된 결과이다.

11 ‘월요일’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월료일]이 아닌 [워료일]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① ‘콩엿’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 ‘ㄴ’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콩년]으로 발음되므로 ④의 예로 적절하다.

③ ‘막일’은 접사 ‘막-’과 어근 ‘일’이 결합한 파생어로,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 [막닐 → 망닐]로 발음되므로 ④의 예로 적절하다.

④ ‘한여름’은 접사 ‘한-’과 어근 ‘여름’이 결합한 파생어로, ‘ㄴ’ 첨가가 일어나 [한녀름]으로 발음되므로 ④의 예로 적절하다.

⑤ ‘웃 입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두 단어 사이에서의 ‘ㄴ’ 첨가가 일어나 [온닙다]가 된 후, 비음화와 된소리되기 가 일어나 [온닙따]로 발음한다. ‘웃 입다’는 두 단어 사이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⑤의 예로 적절하다.

12 ‘흩이불’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흩이불] 이 되고, ‘ㄴ’ 첨가가 일어나 [흩니불]이 되었다가 [ㄷ]이 비 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 [ㄴ]으로 발음하는 비음화가 일어나 [흩니불]이 된다. 따라서 ‘흩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적용되어 [흩니불]로 발음한다.

13 ①의 예문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가 없다. ‘낳으 셨대’의 경우 ‘ㅎ’ 탈락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② ‘낳고’는 ‘ㅎ’이 ‘ㄱ’을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된 결과 [안코]로 발음한다.

③ ‘놓지’는 ‘ㅎ’이 ‘ㅈ’을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된 결과 [노치]로 발음한다.

④ ‘화답하는’은 ‘ㅂ’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된 결과 [화다파는]으로 발음한다.

⑤ ‘맏형’은 ‘ㄷ’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된 결과 [마령]으로 발음한다.

14 <보기>에 제시된 ‘꺾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서 [꺽는 → 껑는]으로 발음되는 단어이다. ‘앞마당’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압마당]이 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나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긁는다’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극는다]가 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나 [궁는다]가 되므로 ‘꺾는’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② ‘마셨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마셜다]가 된 후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마셜따]가 되므로 ‘꺾는’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④ ‘먹는다’는 비음화가 일어나 [멍는다]가 되므로 ‘꺾는’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⑤ ‘맡며느리’는 비음화가 일어나 [만며느리]가 되므로 ‘꺾는’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15 ‘몫’이 [목]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른 것으로 자음 ‘ㅅ’이 탈락된 것이 맞다. 그러나 ‘밖’이 [박]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이 [ㄱ]으로 교체된 것으로 탈락이 일어난 예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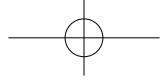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 **오답 풀이** | ① ‘식용유’가 [시꽁뉴]로 발음된 것은 ‘ㄴ’이 첨가된 결과이다.

② ‘얇고’가 [안코]로 발음된 것은 ‘ㅎ’과 ‘ㄱ’이 [ㅋ]으로 축약된 결과이다.

③ ‘같이’가 [가치]로 발음된 것은 ‘ㅌ’이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나 [ㅊ]으로 교체된 결과이다.

④ ‘꽃’이 [꼰]으로, ‘부엌’이 [부억]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ㅊ’이 [ㄷ]으로, ‘ㅋ’이 [ㄱ]으로 교체된 것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다른 음운의 영향과 상관없는 음운 변동으로, 음절의 종성에 놓이는 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된다.

16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그대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 ‘을’이 결합된 ‘꽃을’과 ‘통닭을’의 경우 받침의 소리를 그대로 옮겨 [꼬출], [통달글]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 17** 제11항은 자음군 단순화를 설명한 것으로 ‘탈락’이 적용된 규정이다. ‘쐐[샵:]’은 탈락에 해당하는 예이다.

| **오답 풀이** | ① 제9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교체’가 적용된 규정이다. ‘한낮[한남]’은 이에 해당한다.

③ 제12항의 ‘1’은 거센소리되기를 설명한 것으로 ‘축약’이 적용된 규정이다. ‘낳고[나:코]’는 이에 해당한다.

④ 제12항의 ‘4’는 ‘ㅎ’ 탈락을 설명한 것으로 ‘탈락’이 적용된 규정이다. ‘앓아도[아라도]’는 이에 해당한다.

⑤ 제29항은 ‘ㄴ’ 첨가를 설명한 것으로 ‘첨가’가 적용된 규정이다. ‘집안일[지반닐]’은 이에 해당한다.

- 18** ‘쇠붙이’는 받침 ‘ㅌ’이 형식 형태소 ‘-이’의 영향을 받아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쇠부치/쉐부치]로 발음되며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 **오답 풀이** | ① ‘뚫다’는 ‘ㅎ’과 ‘ㄷ’이 만나 거센소리 [ㅌ]이 되어 [풀타]로 발음되며, 축약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③ ‘쌓이다’는 용언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탈락하여 [싸이다]로 발음되며, 탈락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④ ‘실내화’는 비음 ‘ㄴ’이 앞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적용되어 [실래화]로 발음되며,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⑤ ‘알약’은 ‘ㄴ’ 음이 첨가되어 [알냑]이 되고, 여기에 유음화가 일어나 [ㄴ]이 [ㄹ]로 교체되어 [알약]으로 발음하므로, 첨가와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2) 대화의 원리

확인 문제 01

본문 174~175쪽

01. ⑤ 02. ⑤ 03. ④

- 01** 대화 참여자는 서로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다고 대화를 피하게 되면 대화를 전개해 나갈 수 없게 되므로 원활한 대화를 위한 태도라 할 수 없다.

- 02** 태도의 격률이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태도의 격률에 위배된다.

- 03** (나)의 D는 C가 질의 격률을 위배한 것을 알고 근거가 불충분한 말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묻고 있으며, 대화의 화제를 바로잡고 있지도 않다.

| **오답 풀이** | ① A는 B가 대화를 독점하며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다.

② B는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가운데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③ C는 햄스터가 코끼리만 하다면 거짓으로 여겨지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⑤ B는 양의 격률을, C는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확인 문제 02

본문 176~177쪽

01. ③ 02. ① 03. ⑤

- 01** B는 의도적으로 관련성이 격률을 어겨 자신의 숨은 의도(시험을 못 봤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를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B는 ‘시험 잘 봤어?’라는 A의 물음에 대해 ‘떡볶이’ 이야기를 하며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

② A는 B의 대답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④, ⑤ A는 B의 대답에 함축된 의미를 찾아 상대의 마음을 해아리며 대화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02** (가)의 ⑦은 직접적인 명령인데도 정중한 말이 되고 있으나, ⑮은 간접적인 요구인데도 상대에게 정중하지 않은 불쾌한 말이 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⑮은 의문의 형식을 띤 간접적인 요구이다. 다만 ⑮은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로, 정중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③ ⑦은 자신의 이익이나 부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용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④ ⑮은 자신의 칭찬이나 비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겸양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⑤ ⑦과 ⑮은 상대와 자신의 차이나 일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의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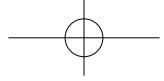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 03** ‘얘기를 들어 주는 선택’의 권한을 상대방에게 주고 ‘잠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요령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확인 문제 03

본문 178~179쪽

01. ⑤ 02. ② 03. ⑤

- 01** 겸양의 격률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B는 A의 칭찬에 자신을 낮추어 공손하게 말하고 있다.



02 민서는 하준의 상차림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고 비방을 최소화하라는 칭찬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민서는 하준의 상차림을 보고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다.

③ 민서의 말은 겉으로는 '남들이 하는 대로 요리'했다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④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맞으나, 하준이 겸손의 뜻으로 한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무례한 말이 된 것이다.

03 가까운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체면을 세워 주려는 태도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면 유지의 원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공손성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확인 문제 04

본문 180~181쪽

01. 상대(연수)의 체면을 손상하여 상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02. ① 03. ⑤ 04.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

01 지호는 연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짐을 받아 달라고 무례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수의 체면이 손상되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체면 유지의 원리와 관련지어 지호의 말이 지닌 문제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체면 유지의 원리와 관련지지 않고 지호의 말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중
체면 유지의 원리만 언급한 경우	하

02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무슨 일에 있어서나 자기가 요구해야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로, 말을 삼가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아니다.

03 담화 관습은 특정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것이며, 전통적인 담화 관습(①)과 오늘날의 담화 관습(②)은 모두 그 당시 언어 공동체의 말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고, 줄임말 같은 신조어, 외국어, 이모티콘 등의 사용이 나타난다.

③, ④ ⑧에서는 말을 아끼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과묵함을 미덕으로 여겨 강조하고 있다.

04 (나)에서 '고구마'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확인 문제 05

본문 182~183쪽

01. ⑤ 02. ② 03. ②

01 언어 공동체 내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차별적 표현이 아닌 공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새롭게 형성된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 젊은 세대의 직설적인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등 대화의 원리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③ 전통적인 담화 관습이라도 현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④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은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사람에게는 의미 파악이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02 피부색에 관한 차별 표현은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담화 관습으로 공정한 언어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하며, 담화 관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④, ⑤ ⑦은 인종 차별의 인식이 담긴 표현으로, 공정한 언어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⑦은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자신을 낮추는 표현,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관한 언어 예절과는 관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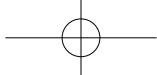
03 앤리스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물었는데, 문지기는 이와 관련 없는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에 어긋난 대화를 하고 있다. 관련성의 격률은 협력의 원리에 해당한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90~192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⑤ 05. 관련성의 격률,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 시험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냥 떡볶이나 먹으려 가자." 06. ③ 07. ⑤ 08. 성준에게 부탁하는 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요청의 격률을 지켜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중하게 부탁해야 한다. 09. ⑥ 10. ① 11. ⑤

01 (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화를 할 때는 대화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전달해야 한다.



02 ②의 대화는 협력의 원리를 잘 지켜 말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B는 대화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③ B는 A에게 빌려 간 책을 잃어버렸음에도 돌려준다고 거짓으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④ B는 A의 물음과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⑤ B는 A의 물음에 불필요하고 장황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03 재판장의 지적에 따르면 윤주는 사실을 과장하여 거짓으로 여겨질 만한 정보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질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04 성수의 물음에 대해 세운이는 관련성의 격률을 지켜 대답하고 있으므로 '대화 합축'이 드러난 사례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지인의 대답에는 '시험공부를 하기 싫다'는 의도가 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빠의 대답에는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승희의 대답에는 '초밥집에 저녁을 먹으려 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준수의 대답에는 '오늘 모임에 갈 수 없다'는 의도가 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5 시험을 잘 보았냐는 친구의 말에 "그냥 떡볶이나 먹으려 가자."라고 대답한 것은 시험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즉 떡볶이를 먹으려 가자는 대답은 화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①에 들어갈 말인 '관련성의 격률'을 쓰고,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	---

②에 들어갈 말인 '관련성의 격률'을 썼으나,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의도'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중
---------------------------------------------------------------	---

③에 들어갈 말인 '관련성의 격률'만 쓴 경우	하
---------------------------	---

06 재현이는 윤호의 칭찬에 대해 겸손함을 갖춰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겸양의 격률(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을 지켜 말해야 한다.

07 민선과 주원이의 대화에서 주원은 민선의 의견에 먼저 동의하고 나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동의의 격률이

드러나 있다. 엄마와 딸의 대화에서 딸은 엄마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고 있으므로 칭찬의 격률이 드러나 있다.

08 연경의 발화는 강한 명령으로, 상대의 부담을 최대화하고 있어 성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연경에게는 부탁의 상황에 맞게 요청의 수락과 거절에 대한 선택권을 상대에게 주어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요령의 격률이 필요하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부탁하는 대화 상황과 요령의 격률을 관련지어 서술한 경우	상
부탁하는 대화 상황은 서술하였으나,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 없이 요령의 격률만 쓴 경우	중
부탁하는 상황이라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하

09 <보기>의 대화에서 기범은 자신의 체면을 손상하는 강 코치의 말에 불쾌함을 느끼고 직설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범이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며 강 코치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기범은 강 코치의 제안에 대한 대답으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는 등의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강 코치의 체면을 손상하는 말하기이다.

② '어차피 니 불러 주는 데도 별로 없다카네.', '딴 데 가믄 주전 뛰기는 쉽지 않을 기다.' 등의 발언은 기범의 체면을 위협하는 말하기이다.

③ '코치 경력도 없고'라는 기범의 말에 나타나 있다.

④ 강 코치는 공손성의 원리인 칭찬의 격률을 위배하는 말하기를 하여 기범의 체면을 손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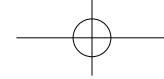
10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말이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이다. 따라서 <보기>의 속담들에는 말을 삼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전통적인 담화 관습이 담겨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③ 통쾌하고 시원한 느낌의 말,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기 등과는 관련이 없는 속담들이다.

④ 말에 대한 경계가 담겨 있을 뿐,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야 함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말을 적게 하거나 삼가라는 의미의 속담들로, 생각이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11 ⑦과 ⑧은 차별 표현이므로, 우리 사회의 담화 관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하고 유지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오답 풀이** | ① ⑦에 나타난 ‘병어리’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손모아장갑’, ‘엄지장갑’과 같이 공정한 언어로 된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⑨에는 동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담겨 있으므로 ‘반려동물’과 같은 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④ ⑦, ⑨과 같은 차별 표현은 그 표현이 가리키는 특정한 집단이나 대상을 소외하거나 차별할 우려가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공정한 언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96~199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② 05. ① 06. [꼬창기] → [꼬탕기], ‘꽃향기’의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꼰]이 된 후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므로 [꼬탕기]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① 08. ③ 09. ③ 10. • 국화 → [구화]: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다. • 국자 → [국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 논일 → [논닐]: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들어오는 첨자가 나타난다. • 칠흙 → [칠흑]: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이 일어난다. • 물난리 → [물랄리]: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11. ⑤ 12. ① 13. ② 14. ⑦의 시우가 한 말은 직접적인 명령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정중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⑦의 태리가 한 말은 의문문을 활용한 간접적인 요구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정중하지 않은 불쾌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15. ② 16. ④ 17. ①

- 01 ‘윕’은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여 [암:]으로 발음되고, ‘밑’은 음절 끝의 자음이 교체되어 [믿]으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음절 끝에서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된다.
 ② ‘부엌’은 [부억]으로, ‘웃’은 [온]으로, ‘빛’은 [빈]으로, ‘잎’은 [암]으로 바꿔서 발음된다.
 ③ ‘간, 달, 섬, 창’은 표기와 발음이 같은 단어들이다.
 ④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부엌[부억]’, 옷[온], 빛[빈], 앞[암]은 받침소리가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 02 ‘볕이’는 제17항에 따라 [벼치]로 발음한다.

- | **오답 풀이** | ①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제24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고 [남기고]로 발음한다.
 ③ 제29항에 따라 ‘ㄴ’이 첨가되어 [한녀름]으로 발음한다.
 ④ 제24항에 따라 어간 받침 ‘ㅁ’ 뒤 ‘ㄱ’이 된소리가 되어 [념:께]로 발음한다.
 ⑤ 제23항에 따라 받침 ‘ㅂ’ 뒤에 결합되는 ‘ㅈ’이 된소리가 되어 [갑찐]으로 발음한다.

- 03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가 결합할 때에는 앞 형태소의 받침을 그대로 뒤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발음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 | **오답 풀이** | ①, ⑤ 밑줄 친 예들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② ‘여덟이다’에서 ‘여덟’에는 자음군이 있으나, 이 중 하나가 탈락되지 않고 뒤의 ‘ㅂ’이 그대로 연음되어 발음된다.
 ④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고 있다.

- 04 ④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비음화’, ⑤은 ‘자음군 단순화+비음화’를 설명한 것이다. ‘깎는[깡는]’은 ‘ㅋ’이 [ㄱ]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된 것 이기 때문에 ⑦의 예에 해당한다. ‘흙만[홍만]’은 ‘ㄹ’에서 앞 자음이 탈락하여 [ㄱ]이 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가 된 것이므로 ⑦의 예에 해당한다.

- | **오답 풀이** | ① ‘앞날[암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므로 ⑦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앉자[안짜]’는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가 아니므로 ⑦의 예로 볼 수 없다.
 ③ ‘닫는[단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 없이 바로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므로 ⑦의 예로 볼 수 없고, ‘핥는[할른]’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은 맞지만 그 후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므로 ⑦의 예로 볼 수 없다.
 ④, ⑤ ‘숯내[순내]’와 ‘앞마당[암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므로 ⑦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않는[안는]’, ‘값이[갑씨]’는 각각 ‘ㅎ’ 탈락과 된소리되기만 일어난 단어이므로 ⑦의 예로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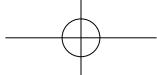
- 05 ‘맛+집’은 [맏집 → 맘집]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되기가 적용되었을 뿐, ‘ㄴ’ 첨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 | **오답 풀이** | ②, ③, ④, ⑤ ‘꽃+잎’은 [꼰입 → 꼳닙 → 꼳닙]으로, ‘솜+이불’은 [솜:니불]로, ‘영업+용’은 [영업농 → 영업농]으로, ‘색+연필’은 [색년필 → 생년필]로 발음된다.

- 06 ‘꽃향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꼰향기]가 되고, 이어서 [꼰]의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어 [꼬탕기]로 발음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

잘못된 발음을 올바르게 고치고, 근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를 모두 제시하여 서술한 경우	상
잘못된 발음을 올바르게 고쳤으나, 근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거센소리되기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잘못된 발음만 올바르게 고친 경우	하



07 ‘묻하고[무치고]’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거센소리되기 가 적용된 후, [ㅌ]이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 단어의 예이다.

| 오답 풀이 | ② ‘맏누이[만누이]’는 파열음 ‘ㄷ’이 비음 ‘ㄴ’의 영향으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즉 조음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③ ‘식용유[시꽁뉴]’는 ‘ㄴ’ 첨가가 일어난 것은 맞지만,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④ ‘흙먼지[홍먼지]’는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을 받은 후 비음화가 된 단어[흑먼지 → 홍먼지]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⑤ ‘급행열차[그랭널차]’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거센 소리되기가 일어나고, ‘ㄴ’이 첨가되어 결과적으로 음운의 개수는 음운 변동 전 10개와 음운 변동 후 10개로 같다.

08 ‘굳히다[구치다]’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후에, 이 [ㅌ]이 다시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티다 → 구치다]의 과정을 거치므로 ⑦과 ⑤의 음운 변동 현상이 모두 일어난 사례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잇히다[이치다]’는 ‘ㅈ’과 ‘ㅎ’이 만나 [ㅊ]이 된 것으로 거센소리되기만 적용된 사례이다.

② ‘붙이다[부치다]’는 ‘ㅌ’이 ‘ㅣ’를 만나 [ㅊ]이 된 것으로 구 개음화만 적용된 사례이다.

④ ‘끊더라[끈터라]’는 ‘ㅎ’과 ‘ㄷ’이 만나 [ㅌ]이 된 것으로 거센소리되기만 적용된 사례이다.

⑤ ‘미닫이[미:다지]’는 ‘ㄷ’이 ‘ㅣ’를 만나 [ㅈ]이 된 것으로 구개음화만 적용된 사례이다.

09 ⑤의 ‘흙까지[흑까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경우로, ‘값 싸다[갑싸다], 닭똥[닭똥]’ 역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 오답 풀이 | ① ⑦의 ‘끊어서[끄너서]’는 ‘ㅎ’ 탈락이 일어난 경우인데, ‘쌓이다[싸이다]’는 ‘ㅎ’ 탈락이 일어난 예가 맞지만, ‘좋던[조:턴]’은 거센소리되기만 일어난 단어이다.

② ⑤의 ‘옳지[올치]’는 거센소리되기의 적용을 받은 단어인데, ‘먹히다[머키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예가 맞지만, ‘목걸이[목꺼리]’는 된소리되기만 일어난 단어이다.

④ ⑥의 ‘여닫이[여:다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경우인데, ‘굳이[구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가 맞지만, ‘젖히다[저 치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이다.

⑤ ⑦의 ‘수박하고[수:바카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경우인데, ‘닳지[달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예가 맞지만, ‘놓는[논논]’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후에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10 ‘국화’는 [구콰]로 발음된다. ‘ㄱ’과 ‘ㅎ’이 합쳐져 [ㅋ]으로 발

음되는 것이므로 음운 변동 가운데 축약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국자’는 [국짜]로 발음된다. 반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ㅈ’이 [ㅉ]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므로 음운 변동 가운데 교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논일’은 [논닐]로 발음된다. 자음 뒤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원래 없던 음운인 ‘ㄴ’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음운 변동 가운데 첨가에 해당한다. 또한 ‘찰 흙’은 [찰흑]으로 발음된다. 겹반침 ‘리’의 앞의 자음 ‘ㄹ’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음운 변동 가운데 탈락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된다. ‘ㄴ’이 앞과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므로 음운 변동 가운데 교체에 해당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제시된 다섯 단어의 발음과 음운 변동 유형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제시된 다섯 단어 중 3~4개 단어의 발음과 음운 변동 유형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제시된 다섯 단어 중 1~2개 단어의 발음과 음운 변동 유형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11 ⑪의 B는 표면적으로는 태도의 격률이 아닌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으며, B의 말에는 수학 숙제를 하기 싫다는 화자의 숨은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⑦의 B는 A의 질문과 관련이 없는 대답이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② ⑤의 B는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므로 질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③ ⑥의 B는 명료하지 않고 애매한 표현이므로 태도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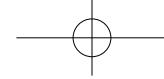
④ ⑦의 B는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양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12 민서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하준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준의 상차림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칭찬의 격률을 어긴 무례한 말로 볼 수 있다.

13 ②에서는 관용의 격률을 적용하여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으로 고쳐 말함으로써 다시 한 번 말해 달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은 요령의 격률, ③은 칭찬의 격률, ④는 겹양의 격률, ⑤는 동의의 격률을 적용하여 고쳐 말한 사례이다.

14 ⑦의 시우의 말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당신이 결정하세요.”라며 직접적인 명령의 언어 형식을 띠고 있으나, 자애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정중한 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⑦의 태리의 말은 의문문을 활용한 간접적인 요구의 언어 형



식을 띠고 있으나, 영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말이어서 정중하지 않은 불쾌한 말이 되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⑦의 시우와 ⑧의 태리가 한 말의 언어 형식을 적절하게 쓰고, 각각의 말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말로 받아들이는지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⑦의 시우와 ⑧의 태리가 한 말의 언어 형식과 각각의 말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말로 받아들이는지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중
⑦의 시우와 ⑧의 태리가 한 말을 정중한 말과 정중하지 않은 말 정도로만 간략하게 서술한 경우	하

- 15 재판장의 지적을 고려할 때, 승준은 담화 상황 및 청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 없는 말을 덧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의 격률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재판장의 지적에 따르면, 윤주는 진실되지 못한 말을 함으로써 질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③ 승준은 필요 없는 말을 덧붙여 양의 격률을 어긴 것이지, 대화의 화제와 관련성이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
④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 것이며, 은주가 태도의 격률을 어기고 있지 않다.
⑤ 재판장은 원활한 대화의 진행을 위해 중간에 대화를 끊은 것이다.

- 16 ⑨은 공손성의 원리 가운데 요령의 격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령의 격률은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⑨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말로, 상대의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② ⑨과 같이 상대에게 선택권이 없는 강한 명령 표현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이므로 상대에게 거절의 선택권을 주어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③ ⑨은 요령의 격률에 따라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표현으로 고쳐 써야 공손하고 예의 바른 말하기가 된다.
⑤ “우리 조에서 성준이 네가 말을 제일 잘하잖아. 혹시 발표를 맡아 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의 형식은 상대에게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17 담화 관습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 공동체 내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힘

(1) 세상을 보는 눈, 논리

확인 문제 01

본문 206~207쪽

01. ④ 02. ⑤ 03. ④ 04. 초연결성이 지역성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1 이 글은 (가)에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나)에서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02 (나)에서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지역성이 부각됨에 따라 언론에서도 지역 뉴스의 보도를 이전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은 (가)에서, ④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3 ⑨에 대해 글쓴이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초연결성이 지역의 특성을 널리 전파하고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초연결성의 원심적인 작용을 긍정하고 있다.

② 초연결성이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약화한다는 것은 글쓴이와 상반된 입장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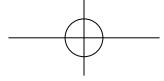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③ 글쓴이는 초연결성에 의해 지리적 공간이 압축된다고 본다.

⑤ 초연결성은 지역 안과 밖 모두에서 특정 지역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게 해 준다.

04 이 글에서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부각하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후, 그 사례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⑨에서 제시하고 있다. 근거를 제시한 후, 근거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근거를 강화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이 글의 근거와 관련지어 ⑨의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⑨의 효과를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을 근거와 제대로 관련짓지 못한 경우	중
이 글의 근거와 관련지어 서술하였으나, ⑨의 효과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이것만은 알고 가기 논증 요소 간의 관계

주장은 논증의 필수 요소이며, 이유, 근거, 반론에 대한 반박은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다. 이유, 근거, 반론에 대한 반박이 신뢰성 있는 정보로 타당하게 제시되면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지게 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①의 개념을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①의 개념을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례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중
①의 개념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고,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과 관련 있는 내용만을 언급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208~209쪽

01. ① 02. ④ 03. ① 04. 행정 구역상의 동 단위보다 좁은 지역에서 일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친밀감을 쌓으며 형성되는 지역성

01 이 글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해당 지역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쇼핑 플랫폼보다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제시하고 있다.

02 (라)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례를 들어 맞춤형 정보의 제공으로 같은 동네에 속한 이용자들 간의 소통이 늘어나 이용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발전 과정의 특징을 규명하고 있지 않다.

② (라)를 통해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있으나, 그 방식을 유형화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라)에서는 여러 플랫폼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라)에서는 같은 동네에 속한 이용자들 간의 상호 연결성에 관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으나, 인과를 통해 같은 동네에 속한 이용자들 간의 상호 연결성이 초연결성이 맺고 있는 관계를 규명하고 있지는 않다.

03 ⑦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주장의 이유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초연결성을 통해 사람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04 ⑦은 ‘아주 좁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이라는 개념으로 세밀한 단위의 지역성을 나타낸다.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행정 구역상의 동 단위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을 ‘동네’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동네’에서 사람들은 일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친밀감을 쌓으며 지역성을 형성한다.

확인 문제 03

본문 210~211쪽

01. ④ 02. ④ 03. ①

01 초연결망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고도화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초연결성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초연결성이 지역 내에서 사람들 간에 맺어지는 관계를 강화한다고 본다.

02 (바)에서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하는 것이 비단 우리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임을 들어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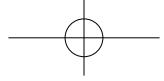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03 ⑦은 예상되는 반론이고, ⑧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다. 즉 이 글의 글쓴이가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세밀한 지역 단위로 사회적 관계가 맺어져 지역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⑦은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역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⑧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지역성이 능동적으로 생성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제시하여 ⑦에서 문제 삼은 사회적 관계가 능동적으로 생성되고 강화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⑦에서 지역성을 약화하는 주체의 성격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③ ⑦에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라고 문제 삼고 있으나, 그 관계의 기반에 대해 ⑧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④ ⑦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지역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⑧에서는 지역성의 능동적 생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사회적 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⑤ ⑦에서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사회적 관계가 지역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⑧에서는 초연결성과 지역성의 관계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지 않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은 논증을 구성할 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주장의 설득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논증 요소이다. 글쓴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글쓴이의 주장, 이유, 근거 등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지 예상한 후, 그 반론을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들어 반박하면 상대 주장의 타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의 타당성이 높아지면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19~222쪽

01. ⑤ 02.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 근거 03. ⑤ 04. ③
 05. ④ 06. ① 07. ④ 08. ① 09. ① 10. ③ 11.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은 능동적으로 일상을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 12. ④

- 01**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초연결성으로,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초연결성과 관련해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특정 학자의 입장으로 바탕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입장과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두 입장을 제시하여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초연결성이 대두된 사회적 배경으로 지구촌 시대가 도래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③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④ ‘초연결성’, ‘동네 생활권’ 등의 개념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 02** ‘동네 생활권’에 관한 정보는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즉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주장의 내용과 ‘동네 생활권’이 주장의 근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주장의 내용은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동네 생활권’이 주장의 근거라는 것을 밝히지 못한 경우	중
주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고, ‘동네 생활권’이 주장의 근거라는 것만 밝힌 경우	하

- 03** 이 글에서는 ⑦ ‘초연결성’이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 04** 이 글에서는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초연결성의 토대가 없었다면 지리적 공간을 압축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성이 부각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후,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⑦은 근거로 제시된 사례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양상을 제시한 것으로, 근거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⑦은 원심적 연결망과 구심적 연결망을 함께 형성한다는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② 이 글에서는 초연결성에 의해 세계화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는 않다.
 ④, 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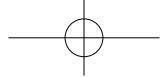
- 05** ⑨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 06** <보기>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례를 동네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물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편리함과 연결 가능성�이 사람들의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한 동네’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소통은 물리적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 동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 07** 이 글은 글쓴이의 주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 논증 요소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08** 이 글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집된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서로 간의 소통을 늘려 상호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만드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의 근거에 해당하며, 근거만 제시한 1 문단에 이유를 추가하면 논증의 논리성이 강화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1문단에서는 근거의 구체적 사례로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③ 2문단에는 반론이 나타나 있고 그에 대한 반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의 주장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모호하지 않다.
 ⑤ 이 글에 이유와 근거의 상호 관련성이 부족한 문단은 없다.



09 ⑦은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빅 데이터를 수집하여 초연결성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다.

10 ⑤의 입장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익명에 기반을 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초연결 사회에서 지역성은 능동적으로 생성되고 강화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다.

11 이 글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역민들이 능동적으로 만나고 소소한 일상이나 감성을 공유하는 등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일상을 나누고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이 글과 <보기>의 공통된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이 글과 관련이 있으나, <보기>와의 관련성은 떨어지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중
이 글과의 관련성은 떨어지거나, <보기>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하

12 (나)의 결론을 통해 현재 축제 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제를 내실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쓰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ㄴ은 축제에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ㄷ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체험 거리가 풍부해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ㄴ, ㄷ 모두 축제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ㄱ은 지역 축제의 관람객 수 감소 문제를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② ㄴ은 지역 축제의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축제의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ㄷ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체험 거리가 풍부한 것을 △△군의 축제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정보를 근거로 체험형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⑤ ㄷ은 다양한 콘텐츠로 성공한 축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ㄹ은 콘텐츠에 고전 소설의 이야기를 접목해 축제를 발전시킨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례들을 근거로 삼아 축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론

확인 문제 01

본문 226~227쪽

01. ⑤ 02. ④ 03. ① 04.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

01 논제는 찬성 측의 주장을 담은 긍정의 평서문으로 진술된다.

02 정책 토론에서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어 변화를 주장하게 되는 것은 반대 측이 아니라 찬성 측이다.

| 오답 풀이 | ① 정책 토론에서 입증 책임은 현 상황의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에 있다.
②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황에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 사안의 해결 방안을 다룬다.
③ 정책 토론에서 찬성 측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논제에 포함된 해결 방안의 실행을 주장하게 된다.
⑤ 정책 토론은 주로 ‘문제의 심각성’, ‘해결 방안’, ‘이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필수 쟁점을 다룬다.

03 정책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며 ‘~해야 한다.’의 형식으로 진술된다. 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문제 사안의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이다.

| 오답 풀이 | ②, ⑤ 사안이 사실인지를 다루는 사실 논제이다.
③, ④ 어떤 가치가 더 수용할 만한지를 다루는 가치 논제이다.

04 정책 토론에서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할 때에는 쟁점별 찬반 양측의 주장,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를 갖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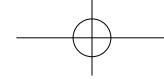
확인 문제 02

본문 228~229쪽

01. ⑤ 02. ④ 03.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염병 백신의 수급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01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의 발언(찬성 1의 입론)으로 토론이 시작되고 찬성 측의 발언(찬성 2의 반론)으로 토론이 마무리된다.

02 반대 측은 필수 쟁점 ①과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라고 하며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반대 측은 찬성 측과 달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구조적인 양극



화로 인한 현상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찬성 측은 백신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과도한 비용 발생을 이유로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필수 쟁점 ①과 관련이 있다.

② 찬성 측은 전염병 백신의 시장 가격이 낮아진 사례를 근거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필수 쟁점 ②와 관련이 있다.

③, ⑤ 찬성 측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에 반대 측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점을 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전략은 모두 필수 쟁점 ③과 관련이 있다.

03 반대 측은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도 전염병 백신의 수급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주장과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고, 이유를 ‘~ 때 문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한 경우	상
주장과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나, 문장 표현이 다소 미흡한 경우	중
주장과 이유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03 반대 2는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의 조사 시점이 △△ 바이러스가 막 확산하던 시점이어서 대륙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여,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의 조사 시점을 바탕으로 자료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 **오답 풀이** | 반대 2가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와 관련된 신뢰성(②), 자료와 관련된 주장의 타당성(③),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공정성(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충분성(⑤)에 대해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확인 문제 04

본문 232~233쪽

01. ⑤ 02. ② 03. ⑤ 04. 지식 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의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

01 찬성 측이 해결 방안의 성과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반대 측은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찬성 측과 달리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다.

② 반대 측은 ‘얼마 전 보도된 뉴스’의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③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실행될 경우,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백신 지원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였다.

④ 찬성 측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의 사례를 근거로 활용하여 반대 신문을 하였다.

02 이 토론은 정책 토론이므로 필수 쟁점은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가?’(문제의 심각성),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문제의 해결 가능성),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큰가?’(이익이나 효과)가 된다. 따라서 ㄱ, ㄷ이 핵심 쟁점에 해당한다.

03 반대 1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개발 도상국의 백신 개발 기술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04 찬성 1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를 근거로 들어 지식 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의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반대 측의 논지를 반박하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찬성 1이 반박한 반대 측의 논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찬성 1의 반박에 대한 반대 측의 답변 내용을 서술한 경우	중
반대 측의 논지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3

본문 230~231쪽

01. ③ 02. ⑤ 03. ①

01 찬성 1은 입론에서 필수 쟁점 세 가지와 관련하여 쟁점별로 각각 주장, 이유, 근거를 들어 논증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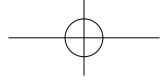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 **오답 풀이** | ① 찬성 1은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으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은 취하지는 않았다.

② 찬성 1은 반대 2가 반대 신문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일부 수용했으나, 조사 시점 이후에도 개발 도상국의 백신 접종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선진국과의 격차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료의 적절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④, ⑤ 찬성 1은 제시한 해결 방안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논제에 포함된 주장의 일부를 재해석하지 않았다.

02 찬성 1은 입론에서 해결 방안의 실행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40 정답과 해설



확인 문제 05

본문 234~235쪽

01. ⑤ 02. ⑤ 03. 찬성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보았다. 이에 반대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도 국제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보았다.

01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각각 두 번째 입론에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⑦)로 인한 이익과 부작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02 [A]에서 반대 1과 찬성 2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 오답 폴이 | ①, ③ 반대 1은 찬성 2 입론의 일부 내용을 인정하였으나, △△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한 모든 지식 재산권을 영구히 면제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장의 근거로 △△ 바이러스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 사례를 활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② 찬성 2는 ‘모두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이라며 반대 1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확인해 보지는 못했음을 시인하였다.

④ 찬성 2는 폴리오 백신, 에볼라 출혈열 백신, 말라리아 백신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더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측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였다.

03 찬성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반대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도 국제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보았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찬성 2와 반대 2의 입장은 정확히 서술하고, 그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한 경우	상
찬성 2와 반대 2의 입장은 서술하였으나, 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중
찬성 2와 반대 2의 입장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6

본문 236~237쪽

01. ② 02. ④ 03. ④ 04.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의욕과 동기를 잃게 될 것이고, 개발 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더라도 자본과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새로운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01 토론에서 반론은 상대측의 입론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상대측 주장보다 더 타당함을 밝히는 과정이다.

| 오답 폴이 | ①, ③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논점을 ‘주장, 이유, 근거’의 논증을 통해 제시하는 과정은 입론이다. ④ 상대측 주장과 근거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측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은 반대 신문에 해당한다. ⑤ 반론은 토론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면 안 된다.

02 반대 1은 [A]에서 전염병 백신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의 선의에 의존해 지식 재산권을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들어 상대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03 찬성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는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찬성 측은 국제적인 협력 체제가 강화되면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 오답 폴이 | ① 찬성 1은 반론에서 세계적인 대유행이 예상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인 협력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② 찬성 1은 반론에서 선진국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해결 방안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③ 찬성 2는 반론에서 대규모 전염병은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과 긴밀한 협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⑤ 찬성 1은 반론에서 지식 재산권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을 돋도록 하면 개발 도상국의 의존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04 반대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도 백신 개발이 더 활발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의욕과 동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개발 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더라도 자본과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새로운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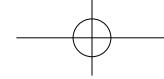
| 서술형 평가 기준 |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입장은 적절히 서술한 경우	상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입장은 모두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중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입장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7

본문 238~239쪽

01. ④ 02. ① 03. ⑤ 04. 토론 과정에서 상대측의 발언을 경청하면 생점에 대한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논제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01**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찬반 양측이 승부를 가리는 경쟁 화법이다.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여 새로운 대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02** 찬성 1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밀한 것이지, 토론에서 자신이 상대측에 비해 역량이 부족했던 점을 성찰한 것은 아니다.
- 03** 토론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비언어적 표현을 자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몸짓, 손짓,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전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04** 토론의 과정에서 대립하는 쟁점에 대하여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경청함으로써 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 대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상대측의 발언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를 토론 참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상대측의 발언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토론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중
상대측의 발언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를 토론 참여자들의 대화와 상관없이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8

본문 240~241쪽

01. ④

- 01** 토론에서 반대 신문을 할 때에는 상대측 토론자들의 입론 내용에 관해서 질문해야 한다.

확인 문제 09

본문 242~243쪽

01. ③ 02. ⑤

- 01**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평가는 토론의 표현 및 태도 평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토론의 내용에 대한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 02** 찬성 측은 입론에서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지만, 비용을 축소하여 제시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자료는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④ 찬성 측은 입론에서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시급성,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 문제 해결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에 대해 말해야 한다.

42 정답과 해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45~248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의 조사 시점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06. ④ 07. ⑤ 08. ② 09. ⑤ 10. ④ 11. ③ 12. 반대 신문 과정에서 상대측에게 반박당한 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13. ② 14.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이 꺾이고 자본 투자도 크게 줄어들어 백신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15. ⑤

- 01** 토론은 논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히기 위해 하는 담화이다.

| 오답 풀이 | ①, ③은 토의, ②는 대화, ④는 협상에 해당한다.

- 02** 찬성 1이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은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 03** 찬성 측은 ⑦와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국제 사회가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건전한 국가 간 경쟁을 유도하여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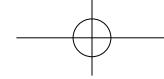
| 오답 풀이 | ①, ② 찬성 측은 ⑦와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으로 인한 백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대륙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였다.

③ 찬성 측은 ④와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전염병 백신의 가격이 낮아져 백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밝혔다.

④ 찬성 측은 ⑧와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이익으로 제시하여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 04** ⑦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는 정책 논제이다. 정책 논제는 찬성 측의 입장에서 진술되는 논제이며, 이에 찬성 측에 입증 책임이 주어진다.

- 05** 반대 2는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의 조사 시점을 문제 삼아 해당 자료가 문제 상황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자료의 성격과 질문의 의도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자료의 성격과 질문의 의도 중 하나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자료의 성격과 질문의 의도를 모두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06 (다)에서 찬성 2는 △△ 바이러스의 백신이 빠르게 개발된 것은 다수의 제약 회사들이 개발 과정에서 지식 재산권을 포기하고 생산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제약 회사에 가져다준 긍정적 기대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⑤ (가)에서 반대 1의 입론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찬성 1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07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따라 토론 참여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다.

08 반대 1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입론 내용은 백신 양극화 현상이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일시적이고 특수한 문제임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반대 1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와 관련하여 백신 양극화 현상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③ 반대 1은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④, ⑤ 반대 1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이 면제되면 선진국들의 국제 사회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백신 지원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09 [B]에서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가 △△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모든 지식 재산권을 영구히 면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상대측 주장의 허점을 공략하고 있다.

10 ⑦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는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여 개발 도상국의 전염병 차단에 큰 성과를 거둔 사례에 해당하므로, 지식 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의 수급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11 찬성 2는 지식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공중 보건 발

전에 크게 이바지한 약품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공중 보건이 발전할수록 지식 재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줄어 든다는 점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찬성 2는 입론에서 지식 재산권이 전염병 백신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의 장벽을 높여 신약 개발과 발전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② 찬성 2는 △△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님을 인정하였다.

④ 찬성 2는 입론에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⑤ 찬성 2는 입론에서 △△ 바이러스의 백신이 비교적 빠르게 개발된 것은 다수의 제약 회사들이 지식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2 찬성 2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상대측에게 반박당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치료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폴리오 백신, 에볼라 출혈열 백신, 말라리아 백신' 등의 다른 예를 근거로 내세우는 전략을 쓰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택한 답변 전략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답변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중
답변 전략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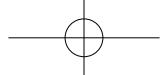
13 찬성 2는 반대 신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의 권리는 희생될 수 있다는 예외적 상황을 제시하여,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도 다른 권리와 미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반대 측의 일반화 논리를 공략하고 있다.

14 반대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는 것이 인류의 백신 개발에 장애가 될 것임을 주장하고, 그 이유로 개발자의 이익이 꺾이고 자본 투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때문이라고 하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반대 2의 주장을 이유와 함께 서술한 경우	상
반대 2의 주장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중
반대 2의 주장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5 반대 2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할 경우 백신 개발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⑦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가 백신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⑦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52~255쪽

01. ① 02. ① 03. ⑤ 04. ④ 05. 지역성은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강화된다. 06. ① 07. ④ 08. ④
 09. 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②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③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 10. ⑤

| 서술형 평가 기준 |

⑦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⑦의 주장과 논리적 관계성이 부족한 내용으로 근거를 서술한 경우	중
⑦의 근거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01 이 글은 주장을 제시하고, 그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 근거를 제시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주장, 이유, 근거 등 논증 요소들의 관계는 논리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02 (가)에서 초연결 사회에서의 네트워크 특징은 언급되어 있으나, 초연결성과 지역성의 차이점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의 핵심 내용은 초연결성이 지역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다.

03 이 글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례를 초연결성이 지역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글쓴이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의 지역 구성원들이 세밀한 지역을 단위로 스스로 소통하며 모임을 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동 단위보다도 좁은 지역 단위의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동네 생활권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네트워크상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도 긴밀하고 친밀한 정서적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③ 초연결 사회의 고도화된 연결망은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도 포함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원심적으로 뻗어 나가는 연결망과 구심적으로 모이는 연결망 모두가 지역성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다.

04 (라)에서는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이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지역민들 간의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중시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구체적 사례로 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유를 제시하여 이유와 주장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⑦에서는 초연결성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존의 연결성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초연결성으로 인해 지역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성이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강화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06 정책 토론에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문제의 심각성–해결 방안–이익이나 비용’의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07 찬성 측 입론에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높다는 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찬성 측 입론에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② 찬성 측 입론에 백신 양극화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다.

③ 찬성 측 입론에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를 통해 백신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이 제시되어 있다.

⑤ 찬성 측 입론에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를 통해 국제 사회의 협력 체제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08 반론에서 찬성 2는 상대방이 주장한 일부 내용을 수용하지도 않았고, 그 주장 속에 포함된 오류를 지적하지도 않았다.

09 이 토론에서 다루어진 세 가지 쟁점은 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②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③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세 가지 쟁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세 가지 쟁점 중 두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세 가지 쟁점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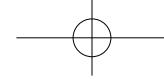
10 학생 3은 찬성 측이 근거 자료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평가하였으나,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 1은 찬성 측의 입론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학생 1은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가 전염병 발생 초기에 조사된 자료라는 점에서 적절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③ 학생 2는 찬성 측과 다른 관점에서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면 백신의 수급 상황이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④ 학생 2는 찬성 측이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제시하며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5

언어와 매체를 활용한 표현

(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확인 문제 01

본문 262~263쪽

01. ⑤ 02. ① 03. ① 04. 높임 표현은 화자가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이 누구이거나에 따라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뉜다.

01 상대 높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데,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는 사이에서는 격식체를, 가깝고 친밀한 사이에서는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02 ‘와’는 청자를 두루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아’가 사용되었으므로, 비격식체인 ‘해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② ‘와라’는 청자를 아주 낮추는 격식체인 ‘해라체’, ③ ‘보게’는 청자를 예사 낮추는 격식체인 ‘하게체’, ④ ‘보오’는 청자를 예사 높이는 격식체인 ‘하오체’, ⑤ ‘옵니다’는 청자를 아주 높이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03 ⑦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자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⑦은 격식체인 ‘하십시오체’, ⑦은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는 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한 것은 ⑦뿐이다. ③ ⑦은 격식체 중 청자를 아주 높이는 ‘하십시오체’, ⑦은 격식체 중 청자를 예사 낮추는 ‘하게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⑦만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④ ⑦은 격식체인 ‘하게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는 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⑤ ⑦은 비격식체 중 청자를 두루 낮추는 ‘해체’를, ⑦은 격식체 중 청자를 예사 낮추는 ‘하게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⑦과 ⑦ 모두 화자가 청자보다 윗사람이거나 두 사람의 나이나 지위가 비슷한 동격인 경우이다.

04 높임 표현은 화자가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이 누구이거나에 따라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이라는 기준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상
높임 표현을 대상을 높이는 것에 한정하여 서술한 경우	중
높임 표현의 기준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264~265쪽

01. ⑤ 02. ② 03. 주격 조사 ‘께서’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반면, 부사격 조사 ‘께’는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4. ④ 05. ③

01 ‘드리다’와 ‘여쭙다’는 모두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이다.

| 오답 풀이 | ① 주체 높임의 대상은 문장의 주체이다. ② 주체 높임은 주로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한다. ③ 주체 높임은 주로 선어말 어미 즉, 서술어의 어말 어미 앞에 ‘-(으)시-’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한다. ④ 주체 높임 중 간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을 높이는 것이다.

02 ‘주무시다’는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특수 어휘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드리다(← 주다)’는 문장의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③ ‘모시다(← 데리다)’는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④ ‘뵙다(← 보다)’는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⑤ ‘여쭈다(← 묻다)’는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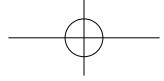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03 주격 조사 ‘께서’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부사격 조사 ‘께’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께서’와 ‘께’의 높임의 특성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상
‘께서’와 ‘께’의 높임의 특성 중 하나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께서’와 ‘께’의 높임의 특성을 모두 바르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04 ‘오라고(오다)’의 주체는 ‘선생님’이 아니라 ‘너(민지)’이다. ‘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오라고’를 ‘오시라고’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 ‘하셔’를 통해 ‘선생님’을 직접 높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하셔(하시다)’의 주체인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다. ③ ‘선생님께서’는 주격 조사 ‘이/가’ 대신에 ‘께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인 표현이다. ⑤ ‘하다(말씀하다)’의 주체는 ‘선생님’이므로,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 ‘하셔’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05 ‘할머니께서는 과일을 드시고 계세요.’는 주격 조사 ‘께서’와 ‘드시다’, ‘계시다’의 특수 어휘로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문장이다.

- | **오답 풀이** | ① 문장의 객체가 ‘부모님’이므로 ‘뵈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를 높여야 한다. 즉 ‘지금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니?’라고 고쳐야 한다.
 ②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의 자전거를 간접적으로 높여야 하므로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로 표현해야 한다. 즉 ‘아버지의 자전거는 어디에 있으세요?’라고 고쳐야 한다.
 ④ 문장의 객체가 ‘어머니’이므로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를 높여야 한다. 즉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게요.’라고 고쳐야 한다.
 ⑤ 문장의 주체가 ‘할아버지’이므로 ‘주무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를 높여야 한다. 즉 ‘할아버지께서 오늘따라 늦잠을 주무시네요.’라고 고쳐야 한다.

확인 문제 03

본문 266~267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③

01 ‘-(으)ㄹ’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 | **오답 풀이** | ①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③ ‘어제’, ‘이미’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④ ‘잠시 후면 교장 선생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와 같이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다.
 ⑤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와 같이 선어말 어미 ‘-는-’은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다.

02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들 중 ⑤의 ‘있더라’에 쓰인 ‘-더-’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④ 선어말 어미 ‘-았-/었-’은 단순히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03 ‘모였다’는 ‘모이- + -었- + -다’로 분석되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되었다.

- | **오답 풀이** | ① ‘먹는다’는 ‘먹- + -는- + -다’로, ② ‘들르던’은 ‘들르- + -던’으로, ④ ‘본’은 ‘보- + -ㄴ’으로, ⑤ ‘갔다’는 ‘가- + -았- + -다’로 분석된다.

04 ‘마무리할 거예요’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한 미래 시제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시제이다. 발화하는 시점보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먼저인 것은 과거 시제이다.

| **오답 풀이** | ① ‘마무리하겠어요’의 ‘-겠-’은 ‘-(으)ㄹ 것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② ‘마무리할 거예요’는 ‘마무리하- + -ㄹ 것이- + -에요’(마무리할 것이에요)로 분석되므로 적절하다.
 ④ ‘내일’이라는 부사어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므로, ‘마무리’하는 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겠-’이 ‘반드시’와 함께 쓰이면 주체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므로 적절하다.

확인 문제 04

본문 268~269쪽

01. ④ 02. ② 03. ③

01 ④에서 선어말 어미 ‘-ㄴ-’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시제가 아닌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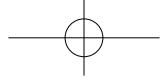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 | **오답 풀이** | ① ⑦과 ⑧에서는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② ⑨에서 선어말 어미 ‘-았-’은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③ ⑩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부사어이다.
 ⑤ ⑪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02 ⑤은 ⑦과 달리 ‘언니가 겸은 구두를 신고 있는 상태이다.’(완료상)와 ‘언니가 겸은 구두를 신고 있는 중이다.’(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⑦의 ‘-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며, 시험공부를 하는 행위에 대한 중의적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 | **오답 풀이** | ① ⑦은 ‘-고 있다’의 형태가 나타나며 진행상에 해당한다.
 ③, ④ ⑧은 ‘-아/-어 버리다’, ⑨은 ‘-아/-어 있다’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모두 완료상에 해당한다.
 ⑤ ⑩은 ‘-아/-어 오다’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진행상에 해당하고 ⑪은 완료상에 해당하는데, 둘 다 중의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03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에서 ‘-겠-’은 추측을 나타내고, ‘다음에는 시간에 맞춰 오겠습니다.’에서 ‘-겠-’은 의지를 나타낸다.

- | **오답 풀이** | ① ‘그런 것은 나도 알겠다.’에서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들어가도 좋겠습니까?’에서 ‘-겠-’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② ‘내가 말해도 되겠니?’에서 ‘-겠-’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에서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④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에서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에서 ‘-겠-’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⑤ ‘이번 달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에서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잠시 후에 교장 선생님이 입장하시겠습니다.’에서 ‘-겠-’은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

확인 문제 05

본문 270~271쪽

01. ⑤ 02. ③ 03. ③ 04. 피동사인 ‘믿기다’에 다시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덧붙였기 때문이다. ‘믿거지지’를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고쳐야 한다.

01 ⑤는 피동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다. ‘우겼다’는 ‘우기-+-(으)는’으로 분석되는 말로, 이때 ‘우기-’는 피동 접사가 쓰인 표현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보였다’는 ‘보-+-이-+-었-+-다’로 분석되는 말로, 피동 접사 ‘-이-’가 사용된 말이다.
② ‘잡혔다’는 ‘잡-+-하-+-었-+-다’로 분석되는 말로, 피동 접사 ‘-하-’가 사용된 말이다.
③ ‘쫓기는’은 ‘쫓-+-기-+-는’으로 분석되는 말로, 피동 접사 ‘-기-’가 사용된 말이다.
④ ‘팔리지’는 ‘팔-+-리-+-지’로 분석되는 말로, 피동 접사 ‘-리-’가 사용된 말이다.

02 ⑤의 서술어인 ‘엎질러졌어요’에는 접사가 아닌 ‘-어지다’가 결합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⑦에서는 ‘엎지르다’라는 능동 표현이, ⑤에서는 ‘엎질러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쓰였다.
② ⑦에서는 물을 엎지른 주체가 ‘저’로 등장하지만, ⑤에서는 물을 엎지른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⑦에서는 물을 엎지른 원인(주체)이 ‘저’로 명시되어 있다.
④ ⑤에서는 ⑦과 달리 물을 엎지른 원인보다는 물을 엎은 사실 자체가 강조되어 있다.

03 ‘잡혔다’의 ‘-하-’는 피동 접사이다. ‘젖히다’는 ‘뒤로 기울기 하다’의 의미를 갖는 말로, 이때 ‘-하-’는 사동 접사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피동 접사 ‘-하-’가 결합하였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피동 접사와 사동 접사의 예와 의미

- 피동 접사: ‘-이-’, ‘-하-’, ‘-라-’, ‘-기-’
→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
예) 깎이다, 닦히다, 밀리다, 쫓기다 등
- 사동 접사: ‘-이-’, ‘-하-’, ‘-리-’, ‘-가-’, ‘-우-’, ‘-구-’, ‘-추-’
→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한다는 의미
예) 기울이다, 앉히다, 날리다, 신기다, 비우다, 둘구다, 낮추다 등

04 ‘믿거지다’는 ‘믿다’의 어간 ‘믿-’에 피동 접사 ‘-기-’가 결합된 ‘믿기-’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덧붙은 말이므로 이중 피동이 된다. ‘믿거지지’는 이중 피동이 되지 않도록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표현해야 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밑줄 친 부분이 이중 피동인 이유를 바르게 설명하고 이중 피동 표현을 적절히 고친 경우	상
밑줄 친 부분이 이중 피동인 이유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였거나 이중 피동 표현을 적절히 고치지 못한 경우	중
밑줄 친 부분이 이중 피동인 이유만 바르게 설명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6

본문 272~273쪽

01. ⑤ 02. ⑥ 03. ㄱ. 진수는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ㄴ. 나는 선생님께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여쭤 보았다.

01 직접 인용에서는 인용절의 마침표를 그대로 표시하고 따옴표로 끝은 뒤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인용격 조사 ‘고’는 간접 인용에서 사용된다.

02 ⑦은 ‘비롯되었다고’에서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하고 있다.
⑨에서도 인용격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⑦과 ⑨ 모두 인용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03 ㄱ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인용절의 큰따옴표를 없애고, 화자인 진수의 관점에서 ‘나’를 ‘자기’로, ‘하겠습니다’를 ‘하겠다’로 바꾸고, 인용격 조사 ‘라고’를 ‘고’로 고쳐 써야 한다. 따라서 ‘진수는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와 같이 바꾸어 써야 한다. ㄴ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인용절의 큰따옴표를 없애고, ‘됩니까?’를 ‘되느냐’로 바꾸고, 인용격 조사 ‘라고’를 ‘고’로 고쳐 써야 한다. 따라서 ‘나는 선생님께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여쭤 보았다.’와 같이 바꾸어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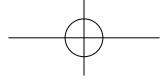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 서술형 평가 기준 |

ㄱ과 ㄴ 모두 적절히 고친 경우	상
ㄱ과 ㄴ 중 하나를 적절히 고친 경우	중
ㄱ과 ㄴ 모두 적절히 고치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7

본문 274~276쪽

01. ② 02. ④ 03. 사고 도구어는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이다. 사고 도구어는 주로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에 나타나며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많은 편이다.



01 ㄷ의 ‘변명’은 ㄹ의 ‘설명’에 비해 ‘그’의 말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판단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02 사고 도구어는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며, 학술적인 글은 정교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도구어에는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과 ㉡이 사고 도구어에 가깝다.

03 사고 도구어는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이다. 사고 도구어는 주로 학술적인 글과 담화에 나타나는데, 학술적인 글은 정교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많은 편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사고 도구어의 개념과 특징을 모두 바르게 설명한 경우	상
사고 도구어의 개념과 특징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설명한 경우	중
사고 도구어의 개념과 특징을 모두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83~286쪽

- 01. ② 02. ④ 03.** 중세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께’나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 **04. ④ 05. ④ 06. ① 07. ④ 08.** ⑨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므로 진행상에 해당하고, ⑩는 동작이 완료되고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므로 완료상에 해당한다. **09. ② 10. ⑤ 11. ④ 12.** 피동 표현, 식탁을 닦지 않은 주체(원인)보다 식탁이 더럽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13.** 글쓴이는 짐멜의 견해에 반박하는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자 짐멜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다. **14. ③**

01 ②는 ‘아버지께서’의 ‘께서’, ‘드리셨습니다’에서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할머니께’의 ‘께’와 ‘드리셨습니다’에서 특수 어휘 ‘드리다’를 통해 객체 높임이, ‘-습니다’의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돌아왔습니다’에서 ‘-습니다’의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만 실현된 문장이다.

③ ‘할머니께서’의 ‘께서’와 ‘심으셨습니다’의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심으셨습니다’에서 ‘-습니다’의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다.

④ ‘선생님께’의 ‘께’와 특수 어휘 ‘여쭈다’를 통해 객체 높임만 실현된 문장이다.

⑤ ‘모시다’의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 높임이, ‘다녀왔습니다’에서 ‘-습니다’의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다.

02 ⑩의 ‘일이니?’에서는 종결 어미 ‘-니’를 사용한 ‘해라체’의 상대 높임이 나타나는데, 해라체는 격식체에 해당한다. 한편 ⑪과 ⑫은 각각 종결 어미 ‘-ㅂ니다’, ‘-습니다’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상대 높임이 나타나는데, 하십시오체는 격식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⑪에서는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고, ⑫에서는 ‘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② ⑬에서는 ‘계시다’, ⑭에서는 ‘여쭙다’의 특수 어휘를 통해 각각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③ ⑮은 ‘-ㅂ니다’, ⑯은 ‘-니’, ⑰은 ‘-습니다’의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⑤ ⑯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03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습-’, ‘-습-’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께’나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쭙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과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을 모두 바르게 설명한 경우	상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과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 중 하나를 바르게 설명한 경우	중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과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 모두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하

04 ‘그는 자주 손을 씻는다.’에서 ‘씻는다’의 ‘-는-’은 손을 씻는 습관적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과거의 일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쓴 예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지구가 돈다.’에서 ‘돈다’의 ‘-ㄴ-’은 보편적 진리를 표현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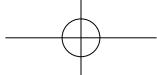
② ‘나는 지금도 그날의 일을 기억한다.’는 ‘지금’과 ‘-ㄴ-’을 통해 현재 기억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우리는 내일 선암사로 떠난다.’에서 ‘떠난다’의 ‘-ㄴ-’은 가까운 미래인 ‘내일’ 떠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임을 표현한 예이다.

⑤ ‘이 꽃이 참 아름답구나.’의 ‘아름답구나’는 형용사로, 선어말 어미 ‘-는-/ㄴ-’ 없이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예이다.

05 ㄷ에서 ‘하고 있다’의 ‘-고 있다’는 진행상에 해당한다. 진행상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동작 완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완료상’에 대한 설명이다.

| 오답 풀이 | ① 그의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②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고,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다. ㄱ에서는 ‘-았-’을 통해 과거 시제가, ㄴ에서는 ‘-ㄹ 것이다’를 통해 미래 시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③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한다. ㄷ에서는 ‘-고 있다’의 형태로 볼 때 현재의 진행상이 나타난다.

⑤ ㄱ의 ‘어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ㄴ의 ‘이제 곧’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구, ㄷ의 ‘지금’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에 해당한다.

- 06** ‘비가 와서 내일 야유회는 다 갔네.’의 ‘갔네’에서 ‘-았-’은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②, ③, ④, ⑤ ‘-았-’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었다.

- 07**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는 ‘-더-’이다. ④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ㄱ의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② ㄴ에서는 ‘-았-’이 특수 용법으로 사용된 사례가 나타난다. 이때의 ‘-았-’은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다.

③ ㅁ은 ‘내일’이라는 부사어로 보아 미래 시제를 나타낼을 알 수 있으며, ‘-ㄴ-’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⑤ ㅂ에서 ‘-겠-’은 화자인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 08** ④는 ‘-고 있다’의 형태로 보아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에 해당하고, ⑤는 ‘-아 있다’의 형태로 보아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에 해당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④와 ⑤가 진행상과 완료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고,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④와 ⑤가 진행상과 완료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혔으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중
④와 ⑤가 진행상과 완료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만 밝힌 경우	하

- 09** ‘조성되다’는 ‘조성’에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조성되다’의 주어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③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적 피동 표현이다.

④, ⑤ ‘조성’하는 행위를 할 주체를 밝히지 않는 표현으로, 행위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 10** ㄴ은 능동사 ‘뽑다’에 피동 접사 ‘-히-’가 결합된 피동사이고, ㄹ은 능동사 ‘닦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된 능동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ㄱ에서는 접사 ‘-히-’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ㄴ에서는 ‘-어지다(연결 어미+보조 동사)’의 형태’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지다’는 접사가 아니다.

② ㄱ은 능동사 ‘나누다’에 ‘-어지다’가, ㄹ은 피동사 ‘심기다’에 ‘-어지다’가 이어진 형태의 활용형이다.

③ ㄱ은 피동 표현이므로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표현하지만, ㄹ은 능동 표현이다.

④ ㅁ은 피동사 ‘심기다’에 ‘-어지다’의 피동 표현이 합쳐진 이중 피동으로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에 어긋나지만, ㅂ은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에 해당한다.

- 11** ‘어우러지다’는 능동사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잡겨지다’는 ‘잡기다’라는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② ‘보여지다’는 ‘보이다’라는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담겨지다’는 ‘담기다’라는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읽혀지다’는 ‘읽히다’라는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12** “식탁이 잘 안 닦였네요.”에 활용된 ‘닦이다’는 ‘닦다’의 피동사이다. 이는 피동 표현에 해당하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식탁을 닦지 않은 주체보다 식탁이 잘 닦이지 않은 사실 자체를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과 피동 표현의 사용 효과를 모두 적절히 서술한 경우	상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을 썼으나, 피동 표현의 사용 효과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중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만 서술한 경우	하

- 13** 글쓴이는 짐멜의 견해에 반박하는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자 짐멜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다. 이는 ‘짐멜의 기대와 달리’, ‘보았지만’에서도 확인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글쓴이가 짐멜의 견해에 반박한다는 것과 짐멜의 말을 간접 인용하였다는 것을 모두 적절히 서술한 경우	상
짐멜의 말을 간접 인용하였다는 것은 서술하였으나, 짐멜의 견해에 반박한다는 서술이 미흡한 경우	중
짐멜의 말을 간접 인용하였다는 것만 서술한 경우	하

14 ‘분류’, ‘분해’, ‘구별’은 한자어로, 고유어의 ‘나누다’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나타낸다.

(2) 매체를 활용한 세상 보기

확인 문제 01

본문 289쪽

01. ⑤

01 매체 자료에는 매체 자료 생산자의 특정한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생산자의 의도를 여과 없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확인 문제 02

본문 290~291쪽

01. ⑤ 02. ⑤

01 (가)는 동물원의 생태 보전 기능을 동물원의 순기능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가)를 쓴 기자가 동물원이 동물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에만 충실히 한다는 관점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02 (가)에서는 반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물 제조, 야생과 유사한 서식 환경 조성, 야간 활동 방사장 운영 등 생태 보전을 위한 ○○ 동물원의 노력을 나열하고 있다.
② 표제와 부제에서 동물원의 순기능에 관한 신문의 전체 내용을 미리 개관하고 있다.
③ 동물원 원장의 말을 직접 인용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멸종 위기종인 팬다의 번식에 성공한 사례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확인 문제 03

본문 292~293쪽

01. ② 02. ④

01 (나)의 생산자는 동물원이 남방큰돌고래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 를 누릴 수 있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에서 돌고래를 감금하고 쇼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소개하며, 남방큰돌고래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생산자는 남방큰돌고래를 감금하고 쇼에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③ ⑥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④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하며, 남방큰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고 하였다.

⑤ ⑤에서 생태 법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불꽃놀이’의 댓글에서 생태 법인이 인정되면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나)는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①에서 해양 환경 정보 포털의 링크를 제공하여 해양 보호 생물종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주로 음성 언어와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주로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신문 기사 등과 같은 인쇄 매체의 특성이다.

② (나)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므로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③, ⑤ (나)는 매체 수용자와 생산자가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시청자는 댓글을 통해 방송 중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확인 문제 04

본문 294~295쪽

01. ② 02. ②

01 (나)는 동물 복지 증대를 위해 남방큰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 역시 동물 복지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생태 보전형 동물원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동물원 외부 전문가인 돌고래 보호 운동가와 생태 법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가)는 ○○ 동물원 원장의 말만 인용하고 있다.

③ (가)는 동물원이 생태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나열하고 있으나, (나)는 동물원이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이 아닌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가)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동물 보호에 개입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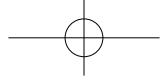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⑤ (나)는 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02 (가)는 동물원의 순기능만을 설명하고 있다.

확인 문제 05

본문 296~297쪽

01. ② 02. 실시간



01 (나)는 매체 수용자의 의견이 댓글을 통해 쉽게 생산자에게 전달되고, 정보 수용자 간의 소통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 **오답 풀이** | ①, ③ (가)는 정보가 수용자에게 다소 일방적으로 전달되므로 수용자의 의견이 매체 생산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어렵다.

④ (나)는 인터넷 방송 매체이므로 (가)에 비해 정보의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고 영향력이 크다.

⑤ (가), (나)는 모두 매체가 다루는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02 인터넷 개인 방송은 수용자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는 특징이 있다.

확인 문제 06

본문 298~301쪽

01. ② 02. ④

01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제작할 매체 자료의 주제와 목적을 먼저 정한 후, 그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면서 매체의 특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02 인터넷 개인 방송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나, 멸종 위기 동물의 불법 사냥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예상 수용자의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⑤ 멸종 위기 동물 보호라는 제작 목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303~306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④ 05. ③ 06. ⑤ 07. ②

08. 동물원은 멸종 위기 동물을 보전하고 습성 발달을 돋는 등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09. ④ 10. ⑤ 11. ③ 12. ③

13. 남방큰돌고래가 법적 권리를 갖게 되어 주체적으로 인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 14. ④ 15. ⑤ 16. ②

01 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들에는 매체 자료를 생산한 사람의 특정한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생산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02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03 동물 복지를 위해 야생과 유사한 서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②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 따르면 동물원의 순기능을 소개하면서 동물원이 단순히 동물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번식을 돋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③ 본문의 세 번째 문단에 따르면 ○○ 동물원의 지속적인 호르몬 검사와 행동 변화 관찰 등의 노력으로 아기 판다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④ 본문의 세 번째 문단에 따르면 ○○ 동물원은 매년 멸종 위기종 번식을 위해 수의사와 사육사들이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동물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다.

⑤ ○○ 동물원은 생태 보전형 동물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기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04 야생 판다의 개체 수나 아기 판다의 무게 등을 수치로 제시하여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의 번식을 돋는다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5 신문 기사는 주로 기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매체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생산할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① 생산자에서 수용자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

② 신문 기사는 수용자의 의견을 생산자에게 바로 전달하기 어렵다.

④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 비해 신문은 정보 확산 속도가 느리다.

⑤ 신문 기사의 정보는 편집 과정에서 여러 여과 과정을 거쳐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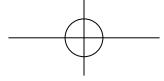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06 동물원이 단순히 동물을 구경하는 곳일 때가 아니라 생태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일 때 동물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생태 보전형 동물원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에서 알 수 있다.

② 신문 기사의 제작자는 인간이 개입하여 동물들을 보전하고 습성 발달을 도와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야생과 유사한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원의 노력에서 알 수 있다.

④ 동물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동물원의 노력에서 알 수 있다.



07 이 신문 기사에서 외부 기관의 검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종과 개체 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③ 동물원의 긍정적인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만 제시하고, 반대되는 의견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동물원이 생태 보전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판타의 번식을 도운 사례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동물원이 생태 보전과 동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 동물원의 노력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08 이 매체 자료 생산자는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인간이 개입하여 동물들을 보전하고 습성 발달을 돋는 것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동물원의 역할을 동물 복지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동물원의 역할을 서술하였으나, 동물 복지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중
동물원의 역할만 단순하게 서술한 경우	하

09 ③의 돌고래 보호 운동가의 말에 따르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는 마치 사방이 거울로 된 집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돌고래를 수족관에서 지내게 하는 것은 동물 복지 실현을 저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①에서 남방큰돌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종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③의 자막에서 남방큰돌고래는 2023년에 전시 부적합 종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⑤의 내용과 댓글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생태 법인으로 인정되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④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까지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0 인터넷 개인 방송은 누구나 생산할 수 있고,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가 여과 없이 반영된다는 특성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방송 출연 인원의 제한은 확인할 수 없다.

② ①에서 ‘산들바람’과 ‘조약돌’의 댓글을 통해 시청자 간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①, ③, ⑤에서 하이퍼링크와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전문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

능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사전에 계획한 정보 외에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정보의 전달이 폭넓게 이루어진다.

11 이 매체 자료의 제작자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2 ②에서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가게 된 이유로 ‘돌고래를 감금하고 쇼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④, ⑤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생태 법인을 돌고래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② 제작자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의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④ ③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전시 부적합 종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지만, 분류의 기준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⑤ ③에서 수족관이 돌고래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말을 제시하였지만, 돌고래의 어떠한 특성 때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13 남방큰돌고래가 생태 법인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주체적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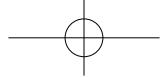
남방큰돌고래의 법적 권리 행사와 주체적인 삶 향유의 내용을 포함해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상
남방큰돌고래의 법적 권리 행사와 주체적인 삶 향유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남방큰돌고래의 법적 권리 행사와 주체적인 삶 향유 중 하나의 내용만 포함하였거나, 문장의 형태를 지키지 않고 서술한 경우	하

14 ‘미리내’는 ‘고양이’가 제시한 설문 조사 결과의 내용이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버드나무’는 ‘불꽃놀이’가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요구함으로써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5 동물원 허가제가 동물원 운영자에게 부담을 주어 동물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내용은 카드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다.

16 과학 기술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때에는 논문이나 책 등이 적합하며, 간결하게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포스터는 적합하지 않은 매체이다.

| 오답 풀이 | ①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오래 보관할 때에는 책이 적합하다.



- ③ 개인적 경험을 정리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때에는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
- ④ 시의성 있는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때에는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 ⑤ 개인적인 주장을 펼치고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 교환을 원할 때에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적합하다.

고 있는 중이다.'(진행상)와 '동생은 하얀 신발을 신은 상태이다.'(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제시된 문장의 중의적 의미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상
제시된 문장의 중의적 의미를 모두 설명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제시된 문장의 두 의미 중 하나만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하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310~314쪽

01. ① 02. ④ 03. ⑤ 04. 하얀 신발을 신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얀 신발을 신은 상태라는 완료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05. ⑥ 06. ① 07. ⑦은 간접 인용 표현으로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드러내고 있고, ⑧은 직접 인용 표현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심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08. ② 09. '조장', '사행심'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이므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조장'이 어울린다. 10. ② 11. ② 12. ③
13. ④ 14. ①

- 01 '더 큰 가방'은 높임의 대상인 '손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간접 높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 02 ⑨은 간접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들의 말씀'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있다'는 간접 높임에서 '있으시다'로 사용되고, 직접 높임에서 '계시다'로 사용되기 때문에 '계셨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셨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풀이 | ⑩ ⑪은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한 것이다.
⑫ ⑬은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좋아하셨어?'로 고쳐야 한다.
⑭ ⑮은 상대 높임 중 비격식체인 해체에 해당한다.
⑯ ⑰과 ⑱은 모두 상대 높임 중 격식체인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다.

- 03 '눈물겹다'는 형용사의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⑲ '기억한다'는 현재 시제로, '-ㄴ-'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함을 표현한다.
⑳ '몰랐지만'은 과거 시제로,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과거에 있음을 표현한다.
㉑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㉒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모양이다'는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 04 '동생은 하얀 신발을 신고 있다.'는 '동생은 하얀 신발을 신

- 고 있는 중이다.'(진행상)와 '동생은 하얀 신발을 신은 상태이다.'(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5 이 기사는 '알려져', '추정된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써서 뉴스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피동 표현을 통해 철근 누락 사태를 일으킨 주체보다 행위를 당한 대상인 아파트를 강조하고 있다.

- 06 '이 물감은 물에 잘 풀린다.'에서 '풀린다'는 '풀다'에 피동 접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으로, 올바른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⑲ '섞여졌다'는 피동사 '섞이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섞였다'로 고쳐야 한다.
⑳ '열려진'은 피동사 '열리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열린'으로 고쳐야 한다.
㉑ '놓여지자'는 피동사 '놓이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으로, '놓이자'로 고쳐야 한다.
㉒ '쓰여질'은 피동사 '쓰이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쓰일'로 고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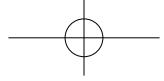
- 07 ㉓은 별다른 문장 부호 없이 인용격 조사 '고'가 사용되었으므로 간접 인용 표현이고, ㉔은 큰따옴표에 인용격 조사 '(이)라고'가 사용되었으므로 직접 인용 표현이다. ㉕은 선수부모가 한 말을 간접 인용하여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고, ㉖은 선수 아버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인터뷰 대상자의 심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㉗, ㉘의 인용 표현의 유형을 쓰고, 그 효과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상
㉙, ㉚의 인용 표현의 유형을 썼으나, 효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중
㉛, ㉜의 인용 표현의 유형만 밝힌 경우	하

- 08 [B]의 화자는 '그'의 말에 대해 D에서는 '변명'이라는 어휘를 선택하여 부정적 판단을, E에서는 '설명'이라는 어휘를 선택하여 긍정적 판단을 하고 있다.

- 09 '사행심'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은 ‘조장’과 어울린다. 서술어 ‘비판한다’에서도 복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권장’, ‘장려’는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어휘로 사용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적절한 어휘를 고르고, 그 어휘를 선택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상
적절한 어휘를 골랐으나, 그 어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중
어휘만 적절하게 선택한 경우	하

- 10 ①은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의 의미로, 학술적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이다. 이에 비해 ‘보이다’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전하지 못한다.

| 오답 풀이 | ① ‘거주하다’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다.’라는 의미로, ‘주거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③ 제시된 글은 학술문이다. 학술적인 글은 정교한 개념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다. ②은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이다.

④ ④은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라는 뜻으로, ‘두다’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한자어이다.

⑤ ⑤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지다.’의 의미로 학술적 개념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사고 도구어이다. 이에 비해 ‘따지다’는 일상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 그친다.

- 11 (가)는 동물원이 동물 복지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동물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나)에서는 남방큰돌고래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생태 범인 인정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동물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동물원의 생태 보전 기능을 설명하며 동물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동물원이 돌고래에게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나)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 범인으로 인정했을 때의 효과를 제시하지만, (가)에는 법적 제도 적용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나)는 동물원의 환경이 돌고래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가)는 동물원의 환경이 동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⑤ (가)는 동물원의 생태 보전 역할을 통해, (나)는 남방큰돌고래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 동물 복지를 강화하려는 관점을 보여 준다.

- 12 (가)는 동물원의 종 보전 역할을 뒷받침하는 외부 기관의 검증 자료나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시하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

- 13 ④에서는 링크를 통해 시청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⑤에서는 시청자의 의문을 예상하고 생태 범인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을 뿐 시청자가 요청하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

- 14 ‘산들바람’은 댓글을 통해 해양 보호 생물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며 진행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링크를 통한 추가 정보 전달은 ‘조약돌’이 아니라 진행자가 한 것이다.

③ ‘고양이’는 진행자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④ ‘꼬리별’은 진행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고, ‘알사탕’은 생태 범인 제도에 관한 진행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⑤ 동물 복지에 대한 ‘동물 사랑’과 진행자의 견해는 일치한다.